『4단계 BK21사업』 미래인재 양성사업(인문사회 분야)
교육연구팀 자체평가보고서

<table>
<tr><td>접수번호</td><td colspan="9">-</td></tr>
<tr><td>사업 분야</td><td>인문학</td><td>신청분야</td><td>철학</td><td>단위</td><td>지역</td><td>구분</td><td colspan="3">교육연구팀</td></tr>
<tr><td rowspan="4">학술연구분야
분류코드</td><td rowspan="2">구분</td><td colspan="2">관련분야</td><td colspan="2">관련분야</td><td colspan="3">관련분야</td></tr>
<tr><td>중분류</td><td>소분류</td><td>중분류</td><td>소분류</td><td>중분류</td><td colspan="2">소분류</td></tr>
<tr><td>분류명</td><td>역사학</td><td>고고학</td><td>미술</td><td>미술일반</td><td></td><td colspan="2"></td></tr>
<tr><td>비중(%)</td><td colspan="2">60%</td><td colspan="2">40%</td><td colspan="3"></td></tr>
<tr><td>교육연구
팀명</td><td colspan="9">국문) 문화유산 스마트기술 융합 교육연구팀
영문) Cultural Heritage and Smart Technology Convergence Education Research Team</td></tr>
<tr><td rowspan="5">교육연구
팀장</td><td>소 속</td><td colspan="8">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td></tr>
<tr><td>직 위</td><td colspan="8">교수</td></tr>
<tr><td rowspan="2">성명</td><td>국문</td><td colspan="2">방병선</td><td>전화</td><td colspan="4">044-860-1264</td></tr>
<tr><td></td><td></td><td></td><td>팩스</td><td colspan="4">044-860-1267</td></tr>
<tr><td>영문</td><td colspan="2">Bang, Byung Sun</td><td>이동전화</td><td colspan="4">010-4129-6980</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E-mail</td><td colspan="4">bjsbang@korea.ac.kr</td></tr>
<tr><td rowspan="2">연차별
총 사업비
(백만원)</td><td>구분</td><td>1차년도
('20.9~'21.2)</td><td>2차년도
('21.3~'22.2)</td><td>3차년도
('22.3~'23.2)</td><td>4차년도
('23.3~'24.2)</td><td>5차년도
('24.3~'25.2)</td><td>6차년도
('25.3~'26.2)</td><td>7차년도
('26.3~'27.2)</td><td>8차년도
('27.3~'27.8)</td></tr>
<tr><td>국고지원금</td><td>141,540</td><td>291,900</td><td>291,900</td><td>291,900</td><td>291,900</td><td>291,900</td><td>291,900</td><td>145,950</td></tr>
<tr><td colspan="2">총 사업기간</td><td colspan="8">2020.9.1.-2027.8.31.(84개월)</td></tr>
<tr><td colspan="2">자체평가 대상기간</td><td colspan="8">2020.9.1.-2021.8.31.(12개월)</td></tr>
</table>

본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4단계 BK21』 사업 관련 법령, 귀 재단과의 협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체평가보고서 및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9월 15일

작성자	교육연구팀장	방병선	(인)
확인자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장	정 용 우	(인)

<자체평가 보고서 요약문>

<table>
<tr><td rowspan="3">중심어</td><td>문화유산</td><td>융합기반</td><td>실용연구</td></tr>
<tr><td>스마트기술</td><td>국제화</td><td>미래수요</td></tr>
<tr><td>학부-대학원 연계교육</td><td>지역·사회협력</td><td>문제해결형</td></tr>
<tr><td>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 달성정도</td><td colspan="3">
본 연구팀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으로 인한 뮤지엄 환경의 변화와 문화유산 관련 산업의 다각적 변화에 발맞춰 전통적인 문화유산 교육과정에서 탈피한 융합 및 창의 기반 교육, 실용연구, 국제화 역량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고고학 연구에서 활용되던 3D 스캐닝 및 모델링 외에도 빅데이터, MR, XR, 메타버스 등의 문화기술을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융합 기반 실용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유산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융합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회 문제해결형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에 대비한 문화유산 교육 및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제화, 세계화를 선도하는 문화유산 교육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팀은 ‘융합형 미래인재’, ‘실무형 전문인재’, ‘문제해결형 창의인재’를 목표로 1) 교육, 2) 연구, 3) 국제화, 4) 지역 사회 문제해결 및 기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목표 달성 정도는 다음과 같다.

1) 교육
◆ 해외 대학 융합교육 우수 사례를 분석하여 개선점 도출 및 차년도 계획 수립
◆ 교육 및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합형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6개 운영
(3D 스캐닝 실습, 컴퓨터 활용능력 강화 프로그램, 문화콘텐츠 기획 등)
◆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탐색 콜로키움 운영
◆ 학부-대학원 연계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대학원생 확보 및 우수인력 배출

2) 연구
◆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논문 게재 지원
◆ 대학원생 학술세미나 운영 지원 및 BK21 연구팀 정기세미나 개최
◆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 대학원생 연구 공간 지원
◆ 국제 공동조사 및 연구 시 행·재정적 지원 계획 수립

3) 국제화
◆ 해외학자 초청강연 개최를 통한 국제 학술연구의 조류 파악 및 교류 기회 제공
◆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국제 학계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 단기 및 장기 연수 지원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계획 수립

4) 지역 사회 문제 해결 및 기여
◆ 지역문제 해결프로그램 “ICT기술 기반 세종시립민속박물관 콘텐츠 개발”
◆ 세종시 소재 중학교 연계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사회참여 프로그램 “경주국제문화재산업전” 전시 기획 및 참가
◆ 세종시 다정동 주민자치위원회 “문화유산 교양강좌 개설 및 운영”
</td></tr>
</table>

교육역량 영역 성과	본 연구팀은 해외 대학 융합교육 우수 사례를 분석하여 본 대학원에 도입 가능한 개선점을 도출하고 실행하였으며, 교과목 개편에 관한 장기적 계획 또한 수립하였다. 특히 기반구축단계인 1~2차년도에는 전통적인 고고학 및 미술사 교과과정에서 탈피한 융합형 교육 과정을 개발 및 운영함으로써 본 교육의 수혜자인 대학원생들에게 융합교육의 당위성과 발전 가능성을 소개하였다. 특히 2021년 1학기에는 <문화유산과 빅데이터> 수업을 개설하여 고고학 및 미술사와 빅데이터 분석의 접점을 모색함으로써 문화유산 연구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6개 운영하여 대학원생들의 연구가 실제 현장에 도입되는 다양한 과정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을 체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문화기술이나 실감형 콘텐츠에 익숙하지 않은 대학원생들을 위해 진로탐색 콜로키움을 장기간 운영하여, 뮤지엄의 변화 추세와 이에 따른 인재상의 변화, 요구되는 역량의 구체적인 양상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정된 진로가 아닌 대학원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마지막으로 2018년부터 진행해온 CURT 프로그램 외에도 학부-대학원 연계 프로젝트 운영하여 우수한 대학원생을 조기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역량 영역 성과	본 연구팀은 대학원생 연구 공간 지원,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논문 게재 지원, 대학원생 학술세미나 운영 지원 등의 다방면의 지원은 물론 BK21 연구팀 정기세미나 개최를 통해 지도교수의 밀착 지도 시스템을 강화하여 대학원생의 학술연구를 장려하였다. 그 결과 대학원생 학술논문 게재 3편, 국제학술대회 발표 11회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참여교수의 논문게재 실적 또한 총 11회로, 동일한 미래인재양성사업 인문사회 분야 타 연구팀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며, 신진연구인력의 경우 인문사회 계열에서 흔하지 않은 SCI 논문을 게재하여 본 연구팀이 추구하는 융합학문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밖에도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최근 연구 동향 파악 및 국제 학자들과의 교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으며,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던 국제 공동조사 및 연구 개시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 계획 또한 수립하여 차년도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국제화 영역 성과	본 연구팀은 해외 연구교류 및 국제화 달성을 위해 해외석학초청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1차년도에 총 3회, 2차년도 상반기에 총5회를 진행하여 인도, 파키스탄, 일본, 중국 학자들과 교류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해외 고고학 및 미술사 연구들을 제공하였다. 또한 그간 본 대학원과 긴밀한 교류를 이어온 터키와 <제 1차 한국-터키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그 간의 발굴성과와 활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기여 영역 성과	본 연구팀은 학교-지역사회-산업체의 긴밀한 연계를 위해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지역문제 해결프로그램”으로는 세종시립민속박물관과 세종지역 콘텐츠 개발 업체인 ㈜문화랑과 협업한 <세종시립민속박물관 관람객 유치를 위한 콘텐츠 개발>이 있으며, 현재 활동지 개발, 박물관 홍보 영상 프로그램,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박물관 구축, 웹 전시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세종시 소재 연동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가경고고학연구소와 함께 진행 중인 본 프로그램은 세종시 청소년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정규 교과목 외 다양한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개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문화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세종시 다정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계한 “문화유산 교양강좌” 또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향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참여 프로그램”으로는 <2021 국제문화재산업전> 전시 기획이 있으며, 학생들이 직접 전시를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무역량 강화 및 국내 문화콘텐츠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흡한 부분 / 문제점 제시	- 현재 대학원생의 학술논문 게재 실적이 다소 미흡하여 연구를 “논문화”하는 과정과 관련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함 - 융합교과목의 실질적 효용을 담보하기 위해 “팀-티칭(Team teaching)” 교과목 개설이나 프로젝트성 교과목의 확충이 요구됨 - 코로나 19로 잠정 중단되었던 인턴쉽, 발굴 현장실습 등을 다시 활성화하여 본 연구팀이 속한 대학원생들의 핵심적인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차년도 추진계획	1~2차년도에 미진했던 대학원생 학술논문 실적 보완을 위해 차년도부터는 정규 교과목에서 습득한 학습 내용이 대학원생 자체 학술세미나에서 복습 및 심화되도록 유도하고, 본 스터디 내용을 발전시켜 비교과 프로젝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계를 통해 학습 내용이 산업 현장 및 실무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지도교수의 적극적인 지도 및 공동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연구내용이 학술논문 게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고자 한다. 특히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수행한 프로젝트 결과물들이 학술논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작성 특강 혹은 세미나를 운영할 예정이며, 정규교과목에서 학술논문 게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통해 연 최소 3편의 대학원생 연구논문을 게재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대학원생들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실무역량 강화와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며,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던 해외학자 초청강연, 진로탐색 콜로키움, 인턴쉽, 현장실습 등을 보다 활발히 운영하여 BK21 연구팀의 활동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교육 연구팀의 구성, 비전 및 목표

Ⅰ 교육연구팀의 구성, 비전 및 목표

1 교육연구팀 구성

1.1 교육연구팀장의 교육・연구・행정 역량

성 명	한 글	방병선	영 문	Bang, Byung Sun
소 속 기 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1) 교육 역량

- **교내 경력**
  - 2000년 3월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조교수 임용, 부교수를 거쳐 정교수 재직 중
  - 2017년 문화유산융합학부로 개편, 정교수로 재직 중

- **석·박사 학생 지도 현황**
  - 2006~2020년 대학원 석사 55명 및 박사 6명 배출

- **학회·교외 활동**
  - 한국미술사학회 총무이사 및 감사, 한국미술사교육학회 총무이사, 한국불교미술사학회 이사 등 역임
  - 현재 한국미술사학회 회장, 세종시 문화재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무형문화재) 재임
  - 2000년 이후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유형문화재), 서울시 문화재위원, 충청남도 문화재위원, 한국학술진흥재단 RM, 2007년 대만예술대학 초빙교수, 문화재감정위원 역임

2) 연구 역량

- **연구 업적**
  - 고려와 조선시대 도자 및 중국, 일본 도자 등에 관해 40여 편 KCI 및 국제학술지 게재
  - 개인 저서 『조선후기백자연구』(일지사, 2000)를 필두로, 『순백으로 빚어 낸 조선의 마음, 백자』(돌베개, 2002), 『왕조실록을 통해 본 조선도자사』(고려대학교출판부, 2005),『중국도자사연구』(경인문화사, 2012), 『도자기로 보는 조선왕실문화』(민속원, 2016) 출판

- 공저 『한국도자사전』(경인문화사, 2015) 등 10여 편 간행
- 중국과 미국, 유럽 등지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 발표

<표 1-1> 교육연구팀장 최근 5년간 연구실적

연번	저자/ 수상자	논문제목/저서제목/ book chapter제목	저널명/출판사명	권(호), 페이지	게재연도 /출판년도	DOI 번호 (해당 시)
1	방병선	19세기 백자 연적과 계영배를 통해 본 조선시대 기교자기 제작의 함의	미술사학연구/한국미술사학회	309호, pp.79-105	2021.03	https://doi.org/10.31065/kjah.309.202103.003
2	방병선	포르투갈, 스페인 시장용 명대 크락자기 연구	강좌미술사/ 한국불교미술사학회	54권, pp.217-241	2020.06	https://doi.org/10.24828/AHJ.54.217.241
3	방병선	17-18세기 이태리 파엔자(Faenza) 도자에 보이는 시누아즈리	한국학연구/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69호, pp.135~160	2019.06	https://doi.org/10.17790/kors.2019.69.135
4	방병선	일본 중세 세토요의 중국도자 모방과 제작기술	강좌미술사/ 한국불교미술사학회	51호, pp.215~237	2018.12	https://doi.org/10.24828/AHJ.51.215.237
5	방병선	임란 전후 피랍 도공 연구-가고시마 나에시로가와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67호, pp.109~130	2018.12	https://doi.org/10.17790/kors.2018.67.109
6	Byung sun Bang	Dancheong colors used fo Korean cultural heritage achitecture restoration	Color research and application/ WILEY	43권 4호, pp.586~595	2018.08	https://doi.org/10.1002/col.22220

- **연구 수주 활동**
  - 2003년, 20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 선도연구자지원 책임자
  - 2007년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교수해외파견방문지원 책임자
  - 2008~2010년 한국연구재단 저술지원 책임자

- 2012년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 책임자
- 2012년, 2014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우수연구논문지원 책임자
- 2014~2017년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 책임자(한중문화교류전자지도 DB구축
- 2019~2021년 대우재단 학술연구지원사업 책임자

3) 행정 역량

- **주요 보직**
  - 고고미술사학과 학과장, 대학원 주임 및 학과장, 인문학부장, 한국학연구소장, 인문대 부학장, 인문대학장, 인문정보대학원장으로 교내 연구지원과 대학 구조 조정 완수

- **연구책임자**
  - 2014~2016년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 책임자로 전자지도 작성과 DB 구축사업을 우수한 평가로 마무리함
  - 2020년부터 한국미술사학회장을 맡아 국내 미술사학계를 선도함

1.2 대학원 학과 소속 참여교수 및 참여연구진

<표 1-1> 교육연구팀 대학원 학과(부) 현황 (단위: 명)

대학원 학과(부)	학기	전체교수 수	참여교수 수
고고미술사학과	2020년 2학기	9	6
	2021년 1학기	9	6

<표 1-2> 최근 1년간 교육연구팀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임교수 현황

연번	성명 (한글/영문)	직급	연구자 등록번호	전공분야	신임교수	외국인
1	방병선 BANG BYUNG SUN	교수	10025716	미술사	X	X
2	이홍종 Lee Hong Jong	교수	10037158	한국선사고고학	X	X
3	최종택 Choi, Jong-Taik	교수	10034218	한국고대고고학	X	X
4	조윤재 CHO YUN JAE	교수	10128662	동양고고학	X	X

5	손준호 Son, joonho	부교수	10042003	한국선사고고학	X	X
6	김윤정 Kim Yunjeong	부교수	10176882	미술사	X	X

<표 1-3>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지도학생 현황 (단위: 명, %)

대학원 학과(부)	참여 인력 구성	대학원생 수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고고미술 사학과	20년 2학기	35	17	48.6	34	3	8.8	-	-	-	69	20	29
	21년 1학기	39	21	53.8	34	3	8.8	-	-	-	73	24	32.9
참여교수 대 참여학생 비율					416.67% (2021년 기준)								

<표 1-4> 교육연구팀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 현황(2020년 2학기)

연번	학위과정	성명	연구자등록번호	참여/지원
1	석사	MA YINGLING	12673353	지원
2	석사	강승민	12427109	참여
3	석사	고원석	12673245	지원
4	석사	공헌배	11090498	지원
5	석사	곽윤	12419381	지원
6	석사	김주형	12672988	지원
7	석사	김희태	12551922	지원
8	석사	문성민	12673044	지원
9	박사	문활람	11091621	지원
10	석사	박정우	12674088	참여
11	석사	박혜원	12673528	참여
12	석사	손정미	12672923	지원

13	박사	송지호	12673431	지원
14	석사	안성희	12673803	참여
15	박사	안세진	12672994	지원
16	석사	오선경	12673882	지원
17	석사	웅정려	12673068	지원
18	석사	이동건	12672986	지원
19	석사	이승연	11911691	지원
20	석사	이정원	12673055	지원
21	석사	이정훈	12673024	지원
22	석사	전대현	12673296	참여
23	석사	정슬주	12673323	참여
24	석사	정재민	12672987	지원
25	석사	한지수	12672985	지원

<표 1-5> 교육연구팀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 현황(2021년 1학기)

연번	학위과정	성명	연구자등록번호	참여/지원
1	석사	MA YINGLING	12673353	지원
2	석사	공헌배	11090498	지원
3	석사	곽윤	12419381	지원
4	석사	김수정	12734326	참여
5	석사	김수현	12736785	지원
6	석사	김예은	12735815	참여
7	석사	김재원	12736799	참여
8	석사	문성민	12673044	지원
9	박사	문활람	11091621	참여
10	석사	박동주	12735320	지원

11	석사	박혜원	12673528	참여
12	박사	송지호	12673431	지원
13	석사	심승렬	12734283	참여
14	석사	안성희	12673803	참여
15	박사	안세진	12672994	지원
16	석사	오선경	12673882	지원
17	석사	이동건	12672986	지원
18	석사	이승연	11911691	지원
19	석사	이정훈	12673024	지원
20	석사	전대현	12673296	참여
21	석사	전현기	12735604	지원
22	석사	정슬주	12673323	지원
23	석사	정재민	12672987	지원
24	박사수료	진영민	11868267	지원
25	석사	한지수	12672985	지원
26	석사	홍미현	12736875	지원

<표 1-6>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지도학생(외국인) 학생 현황

연번	학위과정	성명	국적	학사출신대학
1	석사과정	ALMANSOORI MAI	아랍에미리트연방	Zayed University
2	석사과정	HA AMIE	미국	Villanova University
3	석사과정	KANG JIAZHEQI	중국	성균관대학교
4	석사과정	MA YINGLING	중국	北京電影學院
5	석사과정	PASTREICH SEUNGEUN	미국	추계예술대학교
6	석사과정	XIONG JINGLI	중국	Northwest A&F University
7	석사과정	DONGNI QIU	중국	고려대학교(서울)

2 교육연구팀의 비전 및 목표

2.2 교육연구팀 비전

- 본 교육연구팀은 전통적인 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융합 및 창의 기반, 실용연구, 국제화 등을 중심으로 문화유산 교육·연구의 미래지향적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제시함
- 문화유산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수요에 대비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문제해결형·실무중심형 교육 기반을 마련함

2.2 교육연구팀 목표

1) 교육

- **문화유산 전문성에 융합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 문화유산 조사, 연구, 활용, 전시 등에 이용되는 스마트기기 및 기술에 대한 이해와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
  - 교육과정에서 다루기 힘든 발굴, 답사 등의 현장학습은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및 학과 프로젝트 운영으로 보완

- **문화유산 전문성에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 본 교육연구팀이 속한 학과의 고고학 분야가 2020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최상위 50위를 달성하여 이미 국제화 지표 전략에 강점이 있으므로, BK사업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국제화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해외 유적 조사, 연구·학술교류 등의 국제화 교육 여건을 확장

- **문화유산 전문성에 창의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 활용 중심의 교육과정 및 관련 프로그램의 전략적 재구축 필요

2) 연구

- **스마트기술 활용 및 융합에 기반한 연구주제 다변화와 연구영역 확장**
  - 문화유산 분야에서 스마트기술 활용 및 융합을 통한 영역 확장으로 연구의 전략성 제고
  - 학문후속세대에게 미래지향적인 방향성과 새로운 기반을 마련해주는 선순환 구조 구축

-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연구**
  - 문화유산의 전문적인 연구 성과와 능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콘텐츠 개발 연구로의 전략적 접근
  - 세종시에 위치한 지방대학의 정체성과 역할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접근 필요
- **공동조사 및 연구 교류의 국제화 강화**
  -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를 통한 문화유산 연구 범위의 글로벌화 전략 필요
  - 해외유적 공동조사 및 학술교류를 통한 공동연구 및 국제적인 연구 성과 도출
  -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및 환경을 조성하여 학문후속세대의 연구 활동 활성화

3) 국제화

- **2020 QS 세계대학평가 50위 유지를 위한 국제화 전략 강화**
  - 2020 QS 세계대학평가의 세부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연구력 향상을 위한 행 · 재정적 지원 필요
  - 국제 학계에서의 평가, 국제 논문의 피인용지수, 외국인 교원 및 유학생 비율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성과 유지 및 향상
- **국제 학계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한 우수 평가 유지**
  - 교수 및 학생들의 국제학술대회 참가 및 연구논문 제출 시 행 · 재정적 지원
  - 해외 유적 공동조사 및 답사 프로그램의 확대와 조사 연구 기술 지원

4) 지역 연계 및 사회 문제 해결

- **문화유산정책과 사회 문제에 대한 교과목 개설 및 인식 형성**
  -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정책이나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이 형성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
  - 사회 문제 해결형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실무응용기술 공통과목 신설 및 필수과목 지정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학부-대학원 연계 방안 구축**
  -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주축으로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멘토 관계 구축
  - 지역·사회 문화유산정책 및 관련 문제 해결의 실질적 대안 제시

2.3 교육연구팀 목표 달성 방안

1) 교육

-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 국가적·사회적 환경 변화에 요구되는 융합실무, 국제화, 창의활용역량 강화 교육과정 개편
  - 국제화공통(16과목)과 실무응용기술공통(14과목)을 구성하고 석박사 필수과목으로 지정

- **우수 해외 대학의 융합교육과정 사례분석 및 교육과정 개선점 도출**
  - 고고학과 미술사학 분야의 4개 해외 우수 대학의 융합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분석 및 해외 우수대학의 교과목 구성 및 운영 사례 반영

- **융합기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과목 신설**
  - 실무응용기술공통에 기존 8과목과 새로운 6과목을 개설하여 석박사 모두 2과목(6학점)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스마트기술융합문화유산학Ⅰ, 스마트기술융합 문화유산학Ⅱ, 문화유산과 빅데이터, 문화유산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등 4과목 신설

- **사회 문제 해결 모색을 위한 교과목 신설**
  - 실무응용기술공통에 기존 8과목과 새로운 6과목을 개설하여 석박사 모두 2과목(6학점)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문화유산정책과 사회 문제,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신설

- **비교과 프로그램 및 현장실습제도 활성화**
  - 외국어, 컴퓨터프로그램(GTQ, 일러, 3D맥스 등) 활용을 위한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 박물관, 미술관, 기업 등과의 MOU 협약으로 현장실습제도 활성화

2) 연구

-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논문 제출 시 행·재정적 지원**
  -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국제전문학술지(A&HCI, SSCI, SCI, SCIE, Scopus)에 논문 게재 시 행 ·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교정비 및 참가경비 지원, 성과금 지급 등)

- **국제 공동조사 및 연구 시 행·재정적 지원**
  - 국제 공동조사 및 연구 과정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인 보조 방안 마련
  - 현재 학과와 문화유산융합연구소의 자체 펀드를 마련하여 재정적인 지원 확대

- **교수 1인당 연구 조교 배정을 통하여 연구력 향상**

  - 현재 본교에서는 전임교수에게 대학원 석박사 과정생을 연구조교로 배정하고, 교수 1인당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 6명 이상일 경우 연구조교 2인 배정으로 제도적인 지원

3) 국제화

- **해외 대학과의 MOU 체결 및 공동연구 추진**
- **해외 유적 발굴 프로젝트, 해외 박물관·미술관 답사 프로그램의 확대**
- **해외 석학 초청 세미나 및 학회 개최를 통해 국제 연구 교류 확대**

  - 문화유산융합연구소를 중심으로 2015년부터 대학원생을 위한 국내외 저명학자 초청강연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 제공

- **외국 학생의 입학 기회 확대**

  - 행 · 재정적 지원과 안정적인 교육,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해 외국 학생의 입학률 향상

4) 지역 및 사회 연계

- **학부-대학원 연계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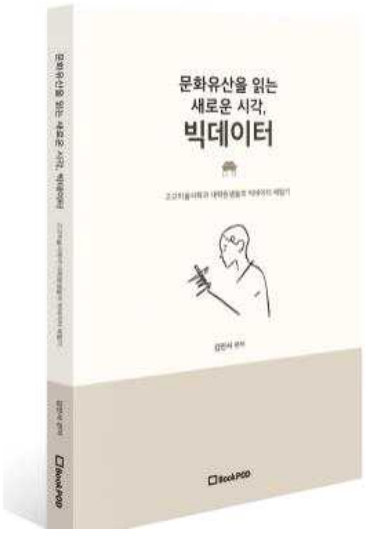
  - 학부와 대학원을 연계하여 세종시 초·중·고 대상의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계획
  -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연계 프로그램은 향후 자교생의 대학원 진학률 제고 효과
  -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위하여 학부-대학원 연계 시스템 구축
  - 세종시 대성고등학교와 고고학 및 한국미술사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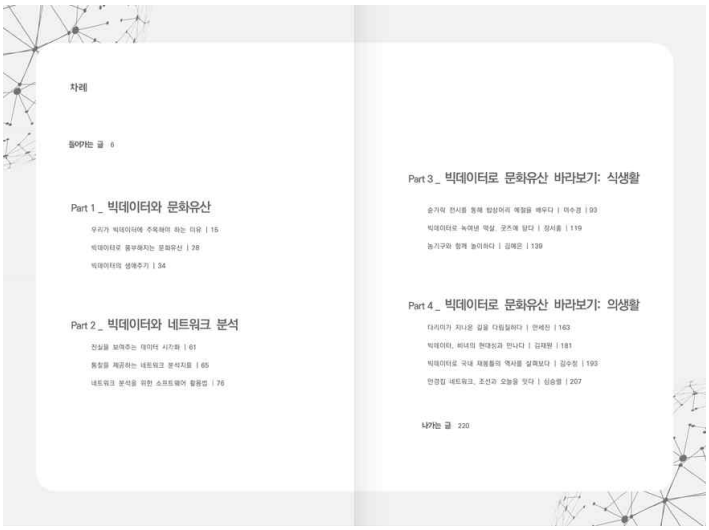
II

역량별 대표 실적 소개

1 교육역량 대표 우수성과

1.1 융합교육과정 운영 결과





- 2021년 1학기에 <문화유산과 빅데이터> 수업을 개설 및 운영함. 본 수업에서는 융합 교육의 첫 시도로 전통적인 고고학 및 미술사 연구 방법론과 다른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요즘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빅데이터와 네트워크 분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프로젝트 기획에 기반한 커리큘럼을 통해 새로운 연구방법론이 고고학 및 미술사 연구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지 집중적으로 탐색
- 한 학기 동안의 연구 결과물은 책으로 출간하여 연구 성과를 체계화하였으며, 원고 작업에 BK21 참여대학원생 중 안세진, 김재원, 김수정, 김예은, 심승렬, 장서홍 총 6명이 참여함

<표 2-1> BK21 연구팀 소속 대학원생들의 원고 작업 참여 현황

연번	학위과정	성명	원고명
1	박사과정	안세진	다리미가 지나온 길을 다림질하다
2	석사과정	김재원	빅데이터, 비녀의 현대성과 만나다
3	석사과정	김수정	빅데이터로 국내 재봉틀의 역사를 살펴보다
4	석사과정	김예은	농기구와 함께 놀이하다
5	석사과정	심승렬	안경집 네트워크, 조선과 오늘을 잇다
6	석사과정	장서홍	빅데이터로 녹여낸 떡살, 굿즈에 담다

1.2 비교과 및 실무역량 관련 프로그램 운영

- 고고학 및 미술사의 최근 연구 동향과 뮤지엄에서 요하는 실무 역량을 파악하여, BK21 참여 대학원생들을 위한 비교과 및 실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함
- 그간 BK연구팀 참여대학원생들이 쌓아온 연구 역량이 실제 현장에 어떻게 적용 및 활용될 수 있는지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및 실무 역량 관련 프로그램들을 제공함
- 2021년까지 총 7개의 연구팀 자체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경주국제문화재산업전, 세종시립민속박물관 콘텐츠 개발, 지역학교 연계 문화유산 활용 체험프로그램, 세종시 다정동 교양강좌 프로그램은 세종시를 비롯한 문화 소외 지역의 문화 발전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로, 학생들이 직접 지역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점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실무 강화 프로그램이자 비교과 프로그램임
- 진로탐색 콜로키움은 본 학과의 정규 교과목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최신 문화기술과 실감콘텐츠 분야를 소개함으로써 창업이나 취업의 방향성을 다각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본 연구팀이 육성하고자 하는 창의인재, 융합형 인재에 대한 필요성이 시대적 흐름임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으며, 콜로키움 이후에도 멘토링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지원함

<표 2-2> 비교과 및 실무역량 프로그램 운영 현황

	프로그램명	참여대학원생	프로그램 진행 기간
1	3D 디지털 스캐닝 연구	김수현, 이정원, 이승연	2021.04~2021.11
2	경주국제문화재산업전 참가 프로그램	이정원, 임소진	2021.04~2021.08
3	ICT 기술 기반 세종시립민속박물관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김예은, 오선경	2021.04~2021.12
4	지역학교 연계 문화유산 활용 체험프로그램 기획	곽윤	2021.04~2021.12
5	컴퓨터 활용 능력 강화 프로그램 (IGTQ 자격증반 운영)	이정훈, 오선경, Ma Yingling, 홍미현, 정슬주, 김수현, 이승연, 김재원, 김수정	2021.06~2021.07
6	진로탐색 콜로키움	BK21 참여인력 전원	2021.06~2021.07
7	세종시 다정동 주민자치위원회 연계 문화유산 교양 강좌 기획	안세진, 진영민, 송지호	2021.09~2021.11

1.3 인력양성을 위한 다각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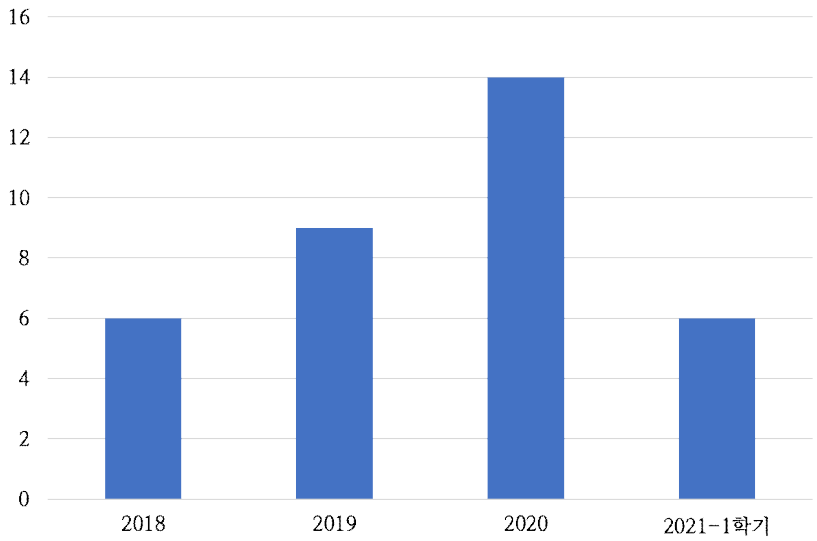
- 2017년에서 2021년 1학기까지 자교 출신 대학원 진학률은 60% 내외로 유지되고 있으며, 석사 및 박사 배출 비율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 2-3> 자교 출신 대학원 석박사과정 입학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01
입학인원	22	9	21	20	13	6	7	15	10	13	15	10
자교출신	9	3	7	3	4	1	2	10	5	6	8	6
진학률(%)	40.90	33.33	33.33	15	30.76	16.66	28.57	66.66	50	46.15	53.33	60

대학원 신입생 확보 계획 수립 및 지원

- 연 1회 학과 행사를 통해 대학원 소개 및 진로상담 기회 제공. 본 계획의 일환으로 2021년 5월 축제 기간을 활용하여 Open Lab 행사를 개최함
- 본 대학원의 우수한 교수진과 뛰어난 연구실적, 쾌적한 수학 환경 등을 소개하고 각 연구 분야의 주요 성과들을 소개함으로써 우수 대학원생을 조기 확보하고자 함
-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ZOOM을 통해 교수진과 학부생 면담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대학원생 멘토를 지정하여 대학원 진학에 관심이 있는 학부생들과 입시 준비, 연구주제, 대학원의 장단점, 향후 진로 고민 등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 제공
- Research Fair를 통해 본 대학원생들의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계획 등을 실시간 강연 형태로 제공 및 E-포스터 형태로 배포하여 본 대학원 진학 시 할 수 있는 연구주제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함
- 본 행사에는 BK 연구팀 소속 참여교수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참여대학원생 중에는 김예은, 오선경, 한지수, 곽윤, 이동건 학생이 대학원생 멘토로 활약함
- 향후에도 학부생을 위한 연구팀 홍보 기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세미나, 콜로키움, 현지조사 등 대학원생을 위한 프로그램에 학부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원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
- 다양한 학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일수록 대학원 진학률이 높음을 고려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부-대학원생 연계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학부생들의 전공과목 심화학습과 대학원 진학률을 높일 예정
- 특히 본 학과에서 2018년부터 진행해온 CURT(Creative Undergraduated Research Training)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학부생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할 예정임. 실제로 본 CURT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의 비율은 매년 증가세이며, 본 프로그램은 학부생의 조기졸업 기회와 자기주도적 연구역량을 개발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함



<그림 2-1> CURT 프로그램 참여학생 추이(2018~2021년 1학기까지)

석사 및 박사 배출 계획

- 전업학생이 대부분인 석사과정생의 경우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할 경우 3년 내에 졸업하는 것이 가능함. 이에 본 연구팀은 중도 탈락자 없이 석사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해 학위논문을 체계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인 '학술세미나', '정기 콜로키움'의 빈도를 늘려 석사과정생에 대한 밀착 지도 및 관리를 기할 예정임
- 학위논문의 수준 향상과 심사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심사 진행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남김으로써 학위청구논문 작성자가 지도내용을 효율적으로 반영하여 논문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
- 일반적으로 전업학생의 졸업률이 비전업학생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고려하여 BK 연구장학금 외에도 학술논문 지원 프로그램, 연구근로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인턴쉽, 성과급 확대 등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표 2-4> 교육연구팀 소속 참여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단위: 명)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실적		석사	박사	계
확보 (재학생)	2020년 2학기	35	5	40
	2021년 1학기	39	4	43
	계	74	9	83
배출 (졸업생)	2020년 2학기	4	0	4
	2021년 1학기	4	1	5
	계	8	1	9

- 본 학과의 박사과정은 학위논문 제출까지 최소 5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본 대학원의 전공 특성상 장기간의 현지조사와 자료정리에 상당한 시간을 요함. 더욱이 박사과정생의 경우 비전업학생의 비중이 높아 지도교수가 중점적으로 학생을 지도 및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본 연구팀에서는 최대한 학업기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논문심사과정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예정이며, 학업과 일의 병행으로 인한 졸업 유예를 방지하기 위해 박사수료생들의 논문 밀착 지도 방안을 수립할 예정임
- 현재 논문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논문심사를 받은 학생들은 지도교수의 지도 외에도 학과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연구 진도를 검토 및 관리하고 있음

<표 2-5> 2021년 봄학기 논문 본 심사 대상자 및 졸업 예정자

2021 봄 미술사학 전공 본 심사(2021년 8월 졸업자)			
날짜	**2021년 05월 29일**	**진행 방법**	**ZOOM**
	이름	**과정**	**발표주제**
1	이정범	박사	아차산 일대 고구려 보루의 구조와 축조수법 연구
2	이운영	석사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옥의 변천과 지역성
3	우은선	석사	宋代 四川 石塔寺 石塔의 기단부 문양 硏究
4	HA AMIE	석사	근대 미국의 한국 도자 컬렉션 연구
5	심재원	석사	統一新羅 陶器 小甁 硏究

<표 2-6> 2021년 가을학기 논문 본 심사 대상자 및 졸업 예정자

2021 가을 고고학 전공 본 심사 예정자(2022년 2월 졸업예정자)			
날짜	**미정**	**진행 방법**	**ZOOM**
	이름	**과정**	**발표주제**
1	진영민	박사	中國 漢 帝國 都城制度의 形成過程 硏究
2	김주형	석사	고구려 성곽의 위계 고찰
3	김희태	석사	中國 六朝時期 考古資料의 西域文化 硏究
4	박동주	석사	청동기시대 자연과학분석 동향
5	손정미	석사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환호 연구
6	이동건	석사	고구려 발해 철제 농공구 연구
7	이정훈	석사	발해 주거건물지 연구

2 연구역량 대표 우수성과

2.1 참여교수 연구역량 대표 실적

- 연구비 수주 실적

<표 7-3> 최근 3년간/1년간 참여교수 1인당 정부, 산업체, 해외기관 등 연구비 수주 실적

항 목	수주액(천원)		
	최근 3년간 (2017.01.01~2019.12.31) 실적	최근 1년간 (2020.09.01~2021.08.31) 실적	비고
정부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248,887,000	445,262,000	
산업체(국내)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	-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총 (환산) 입금액	-	-	
1인당 총 연구비 수주액	41,481,167	74,210,333	

<표 7-4> 최근 3년간(2017.01.01.~2019.12.31) 참여교수 연구비 수주 실적

연번	주관부처	연구과제명	연구 책임자	연구기간		총연구비
				시작일	종료일	
1	세종특별 자치시	효 문화 진흥 교육과정 개발 연구	최종택	20171202	20171226	20,900,000
2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전문가 과정 교육 용역	조윤재	20181211	20190227	22,226,000
3	광진구청	홍련봉 보루 유구 보호시설 운영계획 수립용역	최종택	20181220	20191129	94,500,000
4	경북 영주시	순흥 고분벽화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최종택	20190513	20191112	87,000,000
5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전문가 과정 교육 용역	조윤재	20191209	20200228	19,261,000

<표 7-5> 최근 1년간(2020.09.01~2021.08.31) 실적

연번	주관부처	연구과제명	연구 책임자	연구기간		총연구비,
				시작일	종료일	
1	연천군청	연천군지 편찬용역	최종택	20210524	20220123	190,000,000
2	연천군청	연천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용역	최종택	20200709	20210408	195,000,000
3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조윤재	20210701	20220630	18,230,000
4	공주대학교	공주대학교 중국 고대 도성공간구성 평면구조 연구용역	조윤재	20200803	20201230	10,682,000
5	공주대학교 박물관	중국 고대(한~남북조) 도성 내 건물지의 대지와 기단조성 연구	조윤재	20210803	20211230	31,350,000

<표 7-6> 최근 1년간(2020.09.01.~2021.08.31) 신진연구인력 연구비 수주 실적

연번	주관부처	연구과제명	연구 책임자	연구기간		총연구비
				시작일	종료일	
1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B유형) 지원사업	김민서	20200901	20210831	14,000,000

- 최근 1년간(2020.09.01.~2021.08.31) 연구 업적물

연번	교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전공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1	방병선	10025716	미술사	국내 논문	19세기 백자 연적과 계영배를 통해 본 조선시대 기교 자기 제작의 함의
					미술사학연구(KCI 우수등재지)
					2021.03
					309호
					pp. 79-105
					DOI: 10.31065/kjah.309.202103.003

	본 논문은 19세기 <백자청화투각운룡문연적>과 <백자계영배>의 제작기법과 원류를 고찰하여 조선시대 기교자기 제작배경과 성격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두 작품의 제작기법과 관련문헌 고찰을 통해 사이편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와 계영배 명칭의 사용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에서 동일한 기법으로 제작된 예를 통해 형식을 나누었다. 다음 기법의 원류를 알아보기 위해 중국 송대와 청대에 걸쳐 도류주자와 공도배 등을 고찰하여 조선 기법과의 유사점을 고찰하였다. 끝으로 18세기 이후 북학파와 왕실 관련 기록 등의 고찰을 통해 조선시대 기교자기 제작이 중국자기의 수용과 선택적 모방 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계영배의 경우 중국 공도배 기술 수용과 달리 양식적으로는 조선 수요층의 기호를 반영하였음을 설명하였다.				
2	조윤재	10128662	고고학	국내 논문	南朝 古墳 棺材 및 贈賻制 고찰을 통한 무령왕릉 木棺 樹種 원산지 再論 - 兼論 日本 金松 棺材 硏究의 최근 성과
					한국학연구(KCI등재지)
					2020.12
					75호
					pp. 153-174
					DOI: 10.17790/kors.2020.12.75.153
	1991년 무령왕릉 출토 목관에 대한 수종분석 결과, 일본산 금송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자 학계는 물론 일반 대중의 주목과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이후 고대 백제와 일본의 관계 속에서 금송의 원산지가 일본으로 사실화 되었다. 현재까지 관재 수종에 대한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아무런 과학적 분석이 생성되지 않았기에 “樹種硏究”에 있어 기존 결과와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더욱이 일본이 金松의 유일한 서식지라는 학술적 판단이 여전히 유효하며 국내 식물학계 및 중국 학계에서도 그 결과와 해석을 수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고대 한국 및 중국에서의 금송 서식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타진이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어 객관적인 학술적 근거를 활용하여 원산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여의치가 않다. 다만 공론화되지는 않았지만 중국 남조의 상장의례 및 봉부제도(사여제도)의 영향이 무령왕릉에 강하게 표출되면서, 관재의 증사도 함께 이루어졌을 개연성을 제기하는 분위기가 일부 감지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향후 금송 원산지에 대한 새로운 관련 연구가 생성되는 시점까지 비생산적인 논의를 피하기 위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려 한다. 첫째, 무령왕릉 출토 관재 분석의 경위를 정리하여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고대 중국의 수목식생, 관재수종 및 상장의례 중의 봉부관습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적어도 현재까지는 관재의 유입처가 중국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금송이 백제 왕실 구성원의 장구로 사용된 시점과 사례를 통해 금송관재 사용의 제도화 성립도 살펴보기로 하겠다.				
3	조윤재	10128662	고고학	국내 논문	중국 진한시기 기후·수계환경 변화와 도성입지 및 배도제 운영과의 상관성
					호서고고학(KCI등재지)

					2021.02
					48호
					pp. 210~237
	중국은 서주시기부터 兩京制를 실시하여 수당시기 이후에는 다수의 도성을 두는 多京制로 확장된 도성운영 시스템을 구현한다. 이를 “陪都制” 혹은 “复都制”라 지칭한다. 배도제 운영에는 정치, 군사, 경제적 득실과 효용이라는 현실적 통치이념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다수 왕조의 천도와 배도제 운용 이면에는 기후 및 자연지·리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였다. 화북지역으로 구획되는 관중 및 중원지역에 도성을 두었던 왕조의 도성 구축 및 배도 설치는 사계가 분명한 대륙성 기후의 생활권역에서 오는 강수량, 자연재해, 수계 범람 등의 기후적 가변성에 대응하기 위한 일단의 조치로 강구되었던 판단들이었다. 특히 황하강 중유역 관중지역의 잦은 범람은 정상적인 수운 교통을 교란함으로써 도성에 공급되는 물자와 인력의 이동, 군사전술의 운용 등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기에 배도를 구축하여 이에 대한 손실과 결핍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출하고 기후 및 자연지리의 가변적 요인에 대처하기 위해 시행했던 신축적 도성제도의 정황을 고고자료, 문헌 및 기후·생태환경적 고찰을 통해 이해하는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는 향후 고대 한국의 도성운용 및 천도 원인을 파악하는데도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리라 예상한다.				
4	조윤재	10128662	고고학	국내 논문	韓國甘一洞百濟石室墓的新發現與其屬性淺析
					東亞文明-第2輯, 社會科學文獻出版社(KCI등재지)
					발행일: 2021.9
					공저자: 김희태
					ISBN: 978-7-5201-8804-3
	甘一洞古墓群的新發現高度引起人們的矚目, 學界提出需要對漢城時代個別百濟墓葬的屬性和特征進行新的討論. 由於古墓群形成的內涵和群體性質與漢城百濟墓葬的傳統和形式有所不同, 因此必須重新反思過去的看法和解釋. 甘一洞石室墓的結構特征以及出土的中國隨葬品, 可以說新的考古現象, 也會對現有的研究趨向提出一些相關的問題. 本文通過在結構特征和埋葬習俗上甘一洞百濟墓葬與中國六朝墓葬的對比與觀察, 以及對部分出土器物的隨葬組合和器型的分析, 試圖對甘一洞百濟墓葬的屬性作初步的推演.				
5	조윤재	10128662	고고학	국내 논문	한국 출토 綠釉聯珠紋碗과 동아시아 連珠紋碗의 系譜
					한국고고학보
					2021.8
					2021 권 3호/99~130
					https://doi.org/10.47439/JKRAS.2021.3.099

	연주문완은 중국 북조~수당시기 서역의 영향으로 인해 유행했던 도자이다. 1989년 洛陽漢魏故城 大市遺跡 부근에서 출토된 倣琉璃黑釉陶碗은 기물의 소성과 시문의 독특함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중국을 제외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연주문완의 출토는 일본의 나가사키 이키시마 소로쿠(雙六)古墳, 아스카(飛鳥) 후지하라(藤原)궁 이시카미(石神)遺跡, 전세 혹은 소장품의 聯珠紋碗이 일본에서 공개된 바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형인 녹유연주문완이 출토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경남 창원 石洞 複合遺跡 삼국시대 석실분 M490에서 녹유연주문완 1점이 출토되었다. 경주 안압지의 녹유도자편 출토 이후 최초의 완형 녹유연주문완이다. 낙양의 漢魏故城 大市遺跡 출토품은 외기벽 전체에 크기가 서로 다른 聯珠文을 돌리고 있어. 사산조 페르시아의 유리기를 모방한 기형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연주문 기원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확인되고 있는데 서한시기 서역과의 통교가 본격화된 후 실크로드의 교통로가 확보되면서 위진남북조시기 페르시아의 연주문 소재가 중국 경내로 유입되었을 것이다. 이 시기 주로 페르시아의 화폐에 사용되었던 연주문은 중앙아시아를 거쳐 돈황, 투루판, 중국 내지로 확산되었으며 이후 연주문은 불교벽화, 직물, 금은기 및 도자 등의 기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시기에 따라 변주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본문은 이러한 연주문을 장식 소재로 사용한 중국 도자기물의 고찰을 통해 동아시아 연주문완의 기원과 계보를 검토하고, 아울러 경남 창원 석동 복합유적에서 출토된 녹유연주문완의 원산지와 연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경주 안압지 출토 녹유도자편의 성격과 연대도 새로이 살펴보고자 한다.
6	조윤재 손준호 / 10128662 10042003 / 고고학 / 국내 저서 (공저) / 제목: 기후, 문화 그리고 인간 출판사: 진인진 발행일: 2021.5.31 공저자: 김범철, 이기성, 손준호, 신숙정, 최진무, 박정재, 하시노 신페이(端野晉平) ISBN: 978-89-6347-466-3
	본 연구는 동북아적 맥락에서 (고)기후 변화의 궤적을 복원하고 이를 한국 선사, 고대의 사회문화적 진화과정과 비교함으로써 기후변화라는 요소를 우리 선사·고대문화 변천 과정을 이해·설명하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포함하고자 한다. 기후와 식생을 복원이 마치 수렵채집사회의 현상을 이해하는 작업에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현재의 연구 관행과는 달리 본 연구는 인류의 경관개변 능력이 증대되고 복합적인 사회조직이 등장하는 즈음부터를 주된 관찰대상으로 삼는다. 한국 선사, 고대 사회문화적 진화에서 기후변화 이해의 기여 또한 고고학으로 복원된 인간 행위양식의 변화나 특정 행위의 빈도변화는 종종 기후자료로는 복원이 어려운 고해상도의 보조적 기후자료가 될 수도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기초가 되는 기후자료는 주로 고고학 발굴과 병행된 자료들을 수집할 것인바, 기후변화 궤적의 복원이 사회문화적 변화에 더욱 밀착하여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본 연구는 현재까지 활발하게 연구되지 않았던 아닌 복합사회 청동기시대 이후의 발달과 기후변화의 관계를 다루고자 하는바, 한국 선사, 고대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더욱 역동적이고 긴밀하게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7	손준호	10042003	선사고고학	국내 논문	송국리유적의 시기와 성격, 그 학술적 가치
					한국청동기학보(KCI등재지)
					2021. 4
					28호/58-78
					http://dx.doi.org/10.15397/JKBC.2021.28.58.
	본고는 송국리유적의 시기와 성격 및 그 학술적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먼저 최신 발굴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유적의 시기와 성격을 살펴본 결과, 최초 대지 조성과 함께 방형계 주거 집단의 점유가 시작된 이후 원형계 집단이 등장하면서 대지 조성면을 목주열이 자리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였으나, 기존의 주거형을 일부 인정하여 양자를 모두 축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점유 기간의 공백은 없었으며, 전체 기간도 짧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송국리유적에서는 유력자 또는 유력 집단의 존재가 상정되는데, 그들은 대규모 노동력 동원, 식량 조달 및 분배에 대한 적극적 개입, 제사권 장악 등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였을 것이다. 일반 주민들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여 인구가 점차 증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부적 안정을 바탕으로 주변 유적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정점에 위치하는 중심 취락으로 성장하였음이 짐작된다. 다음 송국리유적의 학술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 번째로 송국리유적의 발굴 및 보고는 송국리유형과 송국리문화를 설정케 한 기초 자료의 최초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학사적으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최초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는 다른 유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특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편이 바람직하다. 다음 두 번째로는 완전한 형태를 갖춘 대단위 취락으로서의 자료적 가치를 들 수 있다. 송국리유적은 점유 기간이 청동기시대 중기라는 시간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시기의 취락 구성 원리나 해당 기간 내에서의 변화 과정을 살피는 데에 양호한 자료를 제공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조사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는 측면에서의 학술적 발전 가능성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조사 기법의 발전과 더불어 앞으로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가 획득될 것이 분명한데, 이것이 다른 유적과 비교할 수 없는 송국리유적의 가장 큰 학술적 가치라고 생각한다.				

8	손준호	10042003	선사고고학	국내 논문	원신흥동유적 출토 반월형석도의 사용흔 분석
					호서고고학(KCI등재지)
					2020. 10
					47호/ pp. 42-69
	본고에서는 대전 원신흥동유적에서 출토된 미사리유형의 석도 12점을 대상으로 육안 및 현미경 관찰을 통해 사용흔을 분석하고 그 사용 방식을 복원하였다. 분석 대상 석도는 크게 무공과 2공으로 구분되는데, 무공이 4점, 2공이 8점이다. 이 중 2공 석도는 다시 평면 형태에 따라 장방형 4점, 어형 2점, 즐형 1점, 주형 1점으로 세분된다. 고배율 현미경을 이용한 분석 결과 총 7점에서 사용흔이 관찰되었는데, 6점의 2공 석도에서는 기존에 복원된 사용 방식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구체적인 사용법으로는 오른손 중지에 끈을 연결하여 석도를				

	잡은 다음, 엄지로 벼과식물을 석도에 밀착시키고 검지로 누르면서 손목을 비틀어 이삭을 따는 방식이 상정되었다. 이와 달리 무공 석도 1점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의 광택이 관찰되었는데, 식물은 아니지만 부드러운 상태의 작업 대상물을 추정할 수 있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용 방식을 상정하기는 어렵지만, 수확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9	손준호	10042003	선사고고학	국내	중국 동북지역 청동기시대 석기 연구
					강원사학(KCI등재지)
					2021. 5
					36호/135-168
	본고는 중국 동북지역 청동기시대 석기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식 보고서가 출간된 15개 유적의 석기 자료를 분석하여 지역별 특징과 변화상과 조성비 비교를 통해 생계 방식을 추정하였다. 첫 번째, 松嫩平原에서는 어로와 수렵을 중심으로 농경과 목축을 병행하지만, 석기 출토량은 많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두 번째, 遼西地域에서는 농경을 중시하면서 어로와 수렵, 목축을 병행하는데, 이는 수확구와 굴지구의 높은 비율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또, 식량 처리구와 방직구의 비율도 적지 않아 해당 활동이 상대적으로 빈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遼北地域에서는 수렵구, 수확구, 어구 등이 일정 비율 이상 확인되어 어로와 수렵을 중심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 농경에 의존하는 생계 방식이 추정된다. 네 번째, 遼東山地에 대해서는 수렵과 채집 중심의 생계 방식이 추정된 바 있지만,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석기 가공구와 어구, 적지 않은 비율의 굴지구 등을 볼 때 어로와 농경의 병행도 상정 가능하다. 다섯 번째, 遼東半島의 경우 어로와 채집 중심에 농경이 추가되는 형태로 복원되는데, 수확구와 벌채구의 압도적 비율과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목재 가공구는 농경과 함께 관련 목재의 활발한 이용을 짐작게 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 豆滿江流域의 경우 수렵구, 굴지구, 목재 가공구의 비율이 높아, 수렵과 농경을 병행하는 생계 방식을 추정할 수 있다. 이상 구분된 각 지역에서는 환경적.사회적.문화적 조건에 따라 세부적으로 중요도를 달리하면서 어로, 수렵, 채집, 농경, 목축 등 여러 생계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식량 확보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집단의 공통적인 생계 전략을 보여준다.				

10	최종택	130142	고고학 (역사고고학)	국내 논문	문화유산 디지털지도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북한(평양)지역 및 청주시 대상의 시범형 구축 경험을 기초로-
					백산학보(KCI등재지)
					2020년 12월
					제 118호
					pp. 95~116
					DOI: 10.31065/kjah.309.202103.003
	공공기관의 디지털공간에 공개된 문화유산 관련(공간) 정보가 과도하게 소략하여, 문화유산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면서, 그 문제해결의 일환으로 '디지털 지도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디지털 지도 체계는 개별 문화유산에 대한 속성 데이터베이스, 공간 정				

	보에 의거해 작성되는 디지털지도, 외부 情報源과의 연계체계를 포괄하는 지도체계이다. 본고는 새로이 구축될 '체계'가 탄력성을 담보하면서 기존의 디지털 공간보다는 훨씬 많은 정보를 포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실제로 디지털 지도 체계가 구축되는 상황에서 설명문의 작성, 체계의 구성 및 관리방식에 대한 몇 가지 학술적·기술적 사항들을 제안한다.				
11	김윤정	10176882	미술사	국내 논문	한반도 유입 중국 磁州窯系 瓷器의 양상과 그 의미 야외고고학(KCI등재지) 2020년 11월 제39호 pp. 41-71 DOI: 10.17790/kors.2020.12.75.153
	한반도 유입 자주요계 자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요계 자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려시대 유입된 자주요계 자기와 조선 전기 유적에서 출토된 예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10세기경부터 16세기 전반 경까지 한반도에 유입된 자주요계 자기의 시기별 유입 양상과 특징을 파악하였다. 출토 상황과 전세품 등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자주요계 자기가 개경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유통되지 않았고 주요 소비처가 개경과 한양 도성 일대였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반도에 유입된 자주요계 자기의 사용 계층이나 사용처는 왕실이나 그에 준하는 집단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향후 중국과의 도자 무역 및 교류 양상을 파악하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문화유산 콘텐츠의 다각화 및 중국과의 공동 연구 등에서 의미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12	김윤정	10176882	미술사	국외 논문	The Emergence and Iconography of Seosu (Auspicious Beasts) in Twelfth Century Goryeo Celadon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SCOPUS) 2021.06 Vol.24 No.1 DOI: 10.25024/review.2021.24.1.85
	본고는 고려 12세기 청자에서 서수(瑞獸) 소재가 많이 보이는 점에 주목하여 그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고려 12세기는 청자가 왕실과 귀족의 전유물로 사용되면서 그 위상이 높아진 시기이다. 12세기 청자에 등장하는 다양한 종류의 서수(瑞獸)는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소재다. 고려 12세기는 왕실의 도교적 성향이 강해지고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왕의 위엄과 권위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왕실의 의도가 청자 조형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청자를 통해서 12세기 왕실 문화를 구현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며 고려청자의 연구 주제를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연구 방법과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향후 후학세대에게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가 있다.				

2.2 신진연구인력 연구대표 실적

<table>
<tr><th rowspan="2">연번</th><th>교수명</th><th>연구자
등록번호</th><th>세부전공분야</th><th>실적
구분</th><th>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th></tr>
<tr><th colspan="5">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th></tr>
<tr><td rowspan="5">1</td><td rowspan="5">김민서</td><td rowspan="5">10970504</td><td rowspan="5">공학 &
미술사</td><td rowspan="5">국외
논문</td><td>Visualization of Dynamic Network Evolution with Quantification of Node Attributes</td></tr>
<tr><td>IEEE Transaction on Network Science and Engineering (SCI)</td></tr>
<tr><td>Volume 8, Issue 3</td></tr>
<tr><td>2021</td></tr>
<tr><td>DOI: 10.1109/TNSE.2021.3087334</td></tr>
<tr><td colspan="6">The effective visual exploration of dynamic networks has been one of the toughest challenges and an unsolved problem; however,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network evolution. Although many developments have been achieved in modeling evolutionary networks, the closely related task of visualizing continues to remain a major concern. Therefore, in this study, quantitative analysis is used to assign node attributes in the network topology, and then, the evolutionary process of networks is analyzed. By fixing the position of nodes, the possibility of a stationary shape of the network is suggested, and a more intuitive and comprehensive explanation of the enumeration of the types for the evolutionary process is provided. Further,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is presented in this study in an extremely economical and accessible way by incorporating a circular layout and evolution laws, which offers a new approach for the estimation and evaluation of network evolution. Finally, this three-pronged approach network analysis, quantitative method, and topological modeling is expected to provide a revelatory insight into the principle of network evolution.</td></tr>
<tr><td rowspan="4">2</td><td rowspan="4">김민서</td><td rowspan="4">10970504</td><td rowspan="4">공학 &
미술사</td><td rowspan="4">국내
저서
(공저)</td><td>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빅데이터</td></tr>
<tr><td>북팟</td></tr>
<tr><td>2021. 08</td></tr>
<tr><td>ISBN: 979-11-6663-236-5 03600</td></tr>
<tr><td colspan="6">빅데이터가 현대사회를 관통하는 개념이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인문계열 학생들에게</td></tr>
</table>

	빅데이터란 여전히 ‘나와는 동떨어진, 심지어 어려운 것’이다. 그동안 빅데이터가 선사하는 새로움과 풍요로움을 꽤 흥미로워하면서 관조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남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새 성큼 다가온 빅데이터는 학문의 경계를 초월한 ‘거스를 수 없는 학문적 조류’가 되었고, 더이상 모르쇠로 일관할 수도 역행할 수도 없게 되었다. 이 책은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인문학자들을 위한 책으로, 사회과학 분야와는 다른 인문학 맞춤형 네트워크 분석법을 제안한다. 왜 우리가 빅데이터에 주목해야 하는지? 빅데이터에서 어떠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이 지식과 정보는 우리에게 어떤 기회와 삶의 지혜를 제공할 것인지? 본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3	김민서	10970504	공학 & 미술사	학술발표	공학적방법론에 기반 한 화풍의 정량적 분석과 활용 전국역사학대회 미술사분과 2020. 10
	해외에서 다각적 사업화 및 기술 안정화를 통해 미술계로의 성공적 안착을 도모한 것과 달리, 국내는 공학적방법론에 대한 인식 부족과 종래의 미술품 감정 방식에 관한 변설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직까지 개념 정립 단계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기존 방식들이 지나치게 공학 분야에 편중되어 있던 탓에 미술사적 맥락을 충분히 고찰하지 못했고, 이는 미술품이 시각적 분석 대상으로만 이용되었다는 부정적 인식을 낳기도 하였다. 이러한 작금의 비판적 성찰들은 결국 공학적방법론이 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미술사와의 긴밀한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공학적방법론의 실질적 효용에 관해 소개하고, 기존 미술사방법론과 공학적방법론의 결합을 통해 파생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장 · 단점들을 고찰함으로써 공학적방법론에 관한 인식 전환 및 양자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제언해보고자 한다.				

2.3 참여대학원생 연구대표 실적

연번	학생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전공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1	김희태	12551922	고고학	국내 논문	韓國甘一洞百濟石室墓的新發現與其屬性淺析 東亞文明-第2輯, 社會科學文獻出版社(KCI등재지) 발행일: 2021.9 ISBN: 978-7-5201-8804-3
	甘一洞古墓群的新發現高度引起人們的矚目, 學界提出需要對漢城時代個別百濟墓葬的屬性和特征進行新的討論. 由於古墓群形成的內涵和群體性質與漢城百濟墓葬的傳統和形式有所不同, 因此必須重新反思過去的看法和解釋. 甘一洞石室墓的結構特征以及出土的中國隨葬品, 可以說新的考古現象, 也會對現有的研究趨向提出一些相關的問題. 本文通過在結構特征和埋葬習俗上甘一洞百濟				

	墓葬與中國六朝墓葬的對比與觀察，以及對部分出土器物的隨葬組合和器型的分析，試圖對甘一洞百濟墓葬的屬性作初步的推演.

2	공헌배	11090498	고고학	국내 저널	문익환의 예언시 연구 (2021)
					신학사상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pp. 265-292
	본 연구의 목적은 아브라함 요수아 헤셸(A. J Heschel)의 관점으로 문익환의 시를 분석하는데 있다. 문익환의 시인적 패턴에는 구약의 예언자들과의 동질성 및 차별성이 드러났다. 그 중 가장 뚜렷한 차이는 신비적 요소에 있다. 그리고 역사의식에 있어서의 차이이다. 구약의 예레미야와 이사야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여론을 거스르는 듯 했지만, 문익환은 민주, 자주, 통일, 민족 등 다수의 민중이 동의할만한 시대순응적 패턴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문익환은 이와 같은 시대순응적 패턴으로 그 시대의 정치 현실에 대해 저항한 사상가였지만, 민중에게 낯선 패턴의 주장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예언자들과 문익환과의 공통성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시로 썼다는 데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구약의 예언시들은 타율성(신의 의지)이 강한 데 비해 문익환의 자신의 역사의식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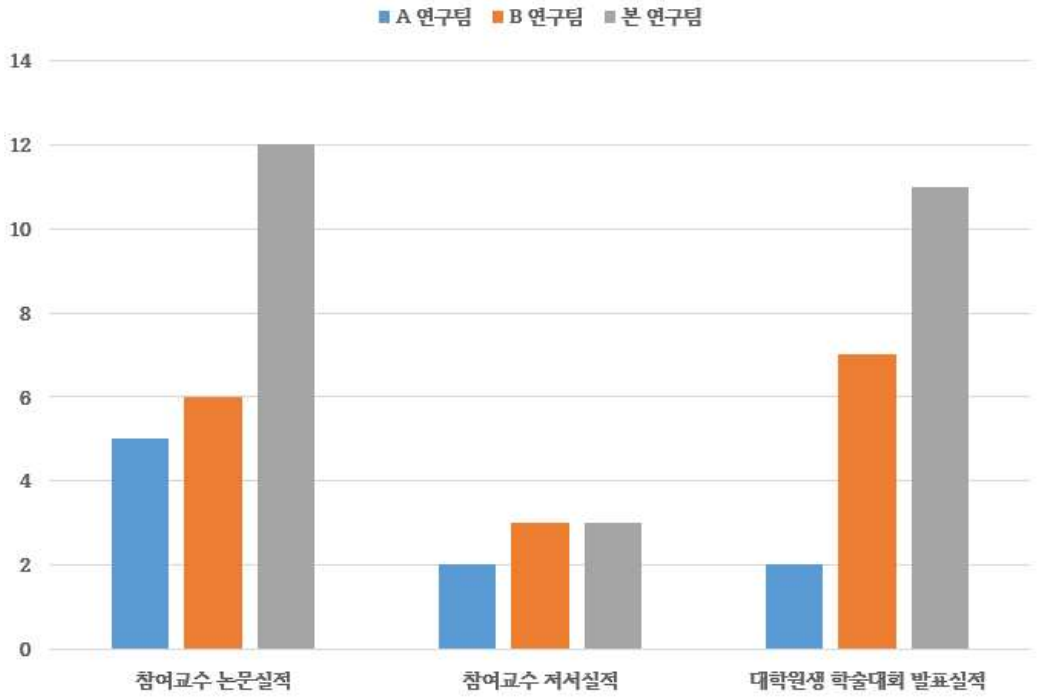
3	공헌배	11090498	고고학	국내 저널	한국 개신교회의 기복신앙 연구 (2021)
					한국학연구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제 76집
					pp. 3-34
					DOI: 10.17790/kors.2021.03.76.5
	본 연구의 목적은 종교 개혁가들의 교리문답에 나타난 주기도문의 주해 중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라는 구절에 대한 해석들을 살핌으로써, 한국 개신교회의 기복신앙적 요소를 비판하는 데 있다. 한국 개신교회의 교인들이 자주 말하거나 간증해 왔던 주장들 가운데 한 가지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또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라는 것들이었다. 한국 개신교회 안에서는 실지로 예수를 믿은 뒤 놀라울 정도로 복을 받은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그래서 급기야 한국 개신교회는 기독교로서의 모습보다도 ‘기복신앙(祈福信仰)’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기도 한다. 한국의 개신교회들 안에는 ‘삼박자 축복론’이나 새벽기도를 통한 기도응답의 간증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십일조’헌금조차도 기복적 요소로 말해진다. 사실 기독교의 전통대로 한다면 십일조는 기복적 요소라기보다는 구제나 선행의 요소로 활용된 점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개신교회에서는 그 십일조조차도 기복적으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의 신앙행태는 종교개혁의 교리와는 다르다는 점들이 드러났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들의 상당수는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만 그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자국의 문화에 적지 않게 영향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개신교회가 바람직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려				

	면 문화나 관습의 힘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 서양과 같은 요구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 상대주의를 인정한다면 기복신앙도 긍정할 수 있을 듯하다.

▶ **국제학술대회 발표 실적 (2021 SEAA)**

주제	발표자	제목
Inter-regional studies	이정훈	The study of residential area during Balhae period
	송지호	A Study on the Flow and Consumption Patterns of Japanese porcelain in the Mordern Era through the Excavation of Hanyang Doseong
Settlement patterns, state formation, social complexity	진영민	Architectural Changes of Capital City Palaces in Ancient China : A case of Xianqin era capital cities
Household archaeology and daily life in Chinese and Korean archaeology	박동주	Applications of Micromorphology to Understanding Use of Space in Prehistoric Houses, South Korea: A case of the Hajung-dong site
Kiln sites (Korea, Japan)	전현기	A study on the Architecture remains and Workshop site of the Goryeo Celadon kiln site of Buan Yucheon-ri
	안세진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the Kiln Sites of Production of Buncheong wares Excavated from the Taesil in Seongju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s reign of the Joseon Dynasty
	오선경	A Study on the Diversity of Goryeo Celadon Technology genealogy through Goryeo Celadon kiln.
Craft production and technology	이동건	The study of the iron farming tools in Goguryeo
Trade, exchange, and sourcing of materials (East Asia)	김희태	A Study on the Artifacts related to the Western Regions of the Eastern Jin Dynasty and Southern Dynasties Periods, China
Burial practices (East Asia)	정슬주	The study of provincal hierarchy during Unified Silla period -Based on roof end tile-
Ritual and religion (East Asia)	손정미	A Study on Ring Ditches of Bronze Age in Hoseo Area, South Korea

- 본 연구팀의 연구실적은 현재 동일한 미래인재 양성사업 인문사회 분야 타 연구팀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우수하며, 특히 참여교수의 학술논문 게재 실적이 총 12건으로 BK21 인문사회 분야팀의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임.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성과 또한 인문사회 계열에서 흔하지 않은 SCI 논문 게재라는 점에서 타 연구팀에 비해 우수한 성과이자 본 연구팀이 추구하는 융합학문의 든든한 토대라 할 수 있음



- 대학원생의 학술대회 발표실적 또한 2차년도 1학기까지의 연구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분야 BK 연구팀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보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팀이 추구하는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목표와 지원 방략이 체계적으로 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 국제화 역량 대표 우수성과

3.1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 및 개최

	강연자/소속	강연 주제
2020년 2학기	쇼다 신야(Shoda Shinya) 일본국립문화재기구 나라문화재연구소 실장	선사시대 자연자원 이용을 밝히기 위한 분자레벨의 고고학
	위정(韦正) 베이징대학교 고고문박학원 교수	북위(北魏) 평성(平城) 시대의 대외 교류

	류자오후이(劉朝暉) 푸단대학 문물 및 박물관학과 교수	당대 청화자기의 재검토
2021년 1학기	다카타 칸타(Dakata Kanta)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연구부 교수	고고학으로 본 삼국시대 한일교섭
	바산트 신데(Vasant Shinde) 인도 데칸대학 고고학과 교수	Harappan culture: New Dimensions and paradigm shift
	시리칸트 야다브(Shreekant Jadhav) 인도 데칸대학 고고학과 교수	The Origin & Development of Rock-cut Caves in Western India
	무하메드 칸(Muhammad Ashraf Khan) Taxila Institute of Asia Civilizations 교수	Buddhist Heritage of Gandhara
	카타야마 마비(Katayama Mabi) 동경예술대학 예술학과 교수	倭館과 도자기

3.2 참여교수의 연구 국제화 실적

연번	참여교수	활동기관	활동 실적
1	방병선	한국미술사학회	■ 문화재청 공동 국제학술대회 “문화재 국외 반출 제도의 현재와 미래” 개최 ■ 한국미술사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한국미술과 글로벌 아트 히스토리” 개최
2	김윤정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 편집위원 활동(2020.0227~2022.02.26.) 2021년 1월 4일에 회의에서 해외에 한국의 문화유산의 연구 성과를 알릴 수 있는 특집호를 기획 및 제안함 ■ 24권 2호(2021.12) 특집안 채택 ‘조선시대 도자문화’ ■ 24권 2호(2021.12) 주제 서평 채택 ‘한국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성과와 의미’
3	김민서	Patterns / LEONARDO	■ Patterns(SCI), LEONARDO(A&HCI) 저널 리뷰 참여

4 지역사회 및 산업 연계 역량 대표 우수성과

4.1 지역사회 및 산업 연계 역량 성과

연번	참여교수	활동 실적
1	조윤재	■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진흥위원 위촉 - 충남 및 세종지역 문화유산 조사 및 보존에 대한 학술자문에 참여하여 지역의 문화재 기록, 보존 및 향후 정책에 대한 문제 해결에 기여함 -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직속기구인 세종학진흥위원의 자격으로 세종시의 정체성 확립 및 신도시의 지속 발전 가능성에 대한 비존제시와 관련 정책의 의사결정에 기여함. ■ (재)가경고고학연구소 학술자문회의: 아산 읍내 문화재 시굴조사 학술자문 ■ (재)고운문화재연구원 학술자문회의: 논산 남산이 문화재 시굴조사 학술자문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가사적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공주 송산리고분군 발굴조사 학술자문 ■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과제기획위원회 기획위원 위촉 - 국립연구기관인 문화재연구소의 문화유산 보존 및 관련 정책의 연구과제 기획과 심의에 참여하여 지역의 중요 자산인 백제문화권의 문화유산 연구와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기여함 ■ (재)누리고고학연구소 학술자문회의: 충남 면천읍 문화재 발굴조사 학술자문 ■ (재)동방문화재연구원 학술자문회의: 충남 당진군 문화재 발굴조사 학술자문 ■ (재)중원문화재연구원 학술자문회의: 충남 천안시 문화재 표본조사 학술자문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학술자문회의: 충남 서천군 문화재 표본조사 학술자문 ■ 국립공주박물관 학술대회 연구발표: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주제발표 - 지역의 중요 국가 문화재인 무령왕릉 및 송산리고분군에 대한 학술연구 및 향후 보존 전시 정책에 대한 제관 문제 해결에 기여함
2	김윤정	■ 한국의 문화유산의 지식 확산을 위한 대중 강연 및 전시해설사 양성 교육 - 2021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명문을 통해 본 청자의 쇠퇴와 분청사기 등장> (2021년 6월 28일) - 2021 경기도박물관 전시해설사 양성교육 <고려와 조선의 도자문화> (2021년 6월 30일) ■ 문화유산 및 유적에 대한 심의 및 자문 -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 고장 한국도자기 보존처리 관련 자문 - 경복궁 주변 문화유적 현지 조사 및 검토, 관련 논고 작성 <북악산의 도자기> - 문경도자기박물관 유물 평가 및 자문

3	손준호	■ 세종시 다정동 주민자치위원회와 MOU 체결 및 다정동 주민을 위한 문화유산 교양강좌 진행 ■ 전국 문화재연구소와의 긴밀한 협업 및 자문 진행 1.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모니터링 : 보령 2. 누리고고학연구소 학술자문회의 : 아산, 세종, 천안, 공주 3. 중원문화재연구원 학술자문회의 : 당진, 천안, 청주, 옥천 4. 서해문화재연구원 학술자문회의 : 아산 5. 가경고고학연구소 학술자문회의 : 아산, 천안, 부여, 금산 6. 백두문화재연구원 학술자문회의 : 청주 7. 한국문화유산연구원 학술자문회의 : 대전, 예산 8. 고운문화재연구원 학술자문회의 : 아산 9. 충청문화재연구원 학술자문회의 : 청주, 세종, 공주, 아산 10. 강산문화재연구원 학술자문회의 : 홍성 11. 한반도문화재연구원 학술자문회의 : 아산 12. 청구고고연구원 학술자문회의 : 영동 13. 미래문화재연구원 학술자문회의 : 부여 14.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학술자문회의 : 세종 15. 서울문화유산연구원 학술자문회의 : 청양 16. 부여 송국리유적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UNTACT 학술심포지엄 주제발표 지역의 중요 국가 사적인 송국리 유적의 학술적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 학술자료 확보에 기여
4	김민서	■ 세종시립민속박물관, 세종시 문화콘텐츠 개발 업체인 ㈜문화랑과 연계하여 민속유물 관련 문화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진행

Ⅲ

교육 역량 영역 목표 달성 실적

1 교육 역량 영역 목표 달성 실적

1.1 세부 목표 및 달성 정도

목표	달성 정도
해외 대학 융합교육과정 우수 사례 분석 및 개선점 도출	100%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합형 교육과정 개편	80%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40%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70%

1) 해외 대학 융합교육과정 우수 사례 분석 및 개선점 도출

- 해외 대학 중 고고학, 미술사학과 석·박사 교과과정에서 과학 기술을 포함한 타 학문 분야와의 융합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운영 사례 선정
- 미국 및 유럽 내 우수 대학 석박사 과정의 융합교육 사례 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팀에서 추진하는 문화유산과 스마트기술 융합 교육의 목표, 교과목 구성 및 운영, 프로그램 등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향후 발전 방향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표 3-1> 해외대학 융합교육 석사학위 과정 우수 사례

지역	대학	대학원 과정	선정이유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Department of Art & Art History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융합포트폴리오 프로그램 운영
	University of Denver	School of Art & Art History	미술사와 박물관학의 융합교육과정
	California College of the Arts	The MFA Design Program	세 가지 분과 제공을 통해 구체적인 융합교육 제공
유럽	Leiden University	Department of Archaeology	고고학에 디지털기술을 융합한 디지털 고고학 전공
	University College London	Archaeological Science	고고학과 과학기술의 융합교육과정

<표 3-2> 해외대학 융합교육학부 과정 우수 사례

지역	대학명	융합학부 과정	교과 과정 개요
미국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ACT (Art, Culture and Technology)	Comparative Media Studies, History Theory and Criticism,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등의 타 융합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다양한 융합교육 제공, 실습 및 창작을 장려하기 위한 Pilot Grant 프로그램 운영
		Media Lab	프로젝트 기반의 실무중심 교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의기반 학습을 위해 미디어 랩 연구진 및 교수들이 주도하는 구두 질문식 (recitation) 수업을 권장함. 학부 학생을 Freshman-Year Program, Under-graduate Research Opportunities Program(UROP) 운영
	카네기 멜론대학	BXA Intercollege Degree	BHA(인문학과 예술의 융합), BSA(과학과 예술의 융합), BCSA(전산학과 예술의 융합) 3가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순수 예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전산학, 미디어 등 기존의 전통적 전공 경계를 넘는 융합연구 진행
		ETC (Entertainment Technology Center)	순수예술에 IT를 접목한 대표적 인력양성 기관, 교육과정은 정해진 커리큘럼이 아닌 철저한 프로젝트 기반 연구이며, 프로젝트 또한 기업 의뢰 프로젝트나 학생 제안 프로젝트로 구성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학생 스스로 융합연구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함
	조지아공과 대학교	School of Interactive Computing	미디어, 지능연구, 인간, 기기 총 4가지의 다학제적 주제를 아우름. Device, Information, Internetworks, Intelligence, Media, Modeling & Simulation, People, Systems & Architecture, Theory의 총 28가지 조합의 전공선택 가능
	워싱턴 대학교	College of Arts and Science	예술, 과학, 인문학 38개 전공의 융합 프로그램을 운영. 예술, 과학, 인문학이 종합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커리큘럼을 연계하여 구성하기에 용이
	뉴욕대학교	Interactive Telecommunications program	컴퓨터 기술의 사회적 응용, 물리적 컴퓨팅, 인터랙티브 게임, 멀티미디어 예술 등 하이테크와 예술의 접목 추구, 인터렉티브 기술 응용과정은 대학 학장이 전교생을 직접 지도하며, 아티스트 비영리단체 종사자, 성공한 미디어 인사 등 미국 내 미디어 분야에서 촉망 받는 리더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고 강연 주제에 본인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융합연구를 장려

	올린공과대학	Convergence Program	모든 학생들이 인문, 예술, 공학 기초 수업을 이수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장래를 생각하여 학위 프로그램을 선택하며, 2명 이상의 타 전공 교수들로부터 공동 지도를 받는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어 환경적 조건 우수
	캘리포니아 예술대학교	School of Critical Studies	Writing Arts, 인문학, 사회과학, 문화연구, 자연과학, Quantitative, Metier Studies, Other Metier Studies 로 총 8개 범주로 구성하여 전체 학부 과정 교육 시간의 40%를 할애하도록 지정

① 미국, Media Lab/AC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1985년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교수와 전 MIT 대학의 총장 제롬 위즈너 교수에 의해 설립된 미디어랩은 전 세계적인 융합연구 붐을 일으킨 선구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음

- 기계공학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사회과학 등 학제 간 연구를 장려하며, 주목을 끄는 연구 결과물들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다수의 예산 투자를 이끌어내고, 이를 다시 융합연구 지원으로 투자함으로써 지속적인 융합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

-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 기반의 실무중심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의 방식의 수업과 미디어랩 연구진 및 교수들이 주도하는 구두질문식(recitation) 수업을 병행함으로써 다양한 생각을 수용하고 공유하는 융합교과목의 취지를 극대화하고 있음

- “Freshman-Year Program”, “Undergraduate Research Opportunities Program (UROP)”은 학부생들이 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석·박사생들과의 협동연구를 통해 보다 심화된 학제 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ACT(Art, Culture and Technology) 과정 또한 융합교육의 선례로써, 본 과정은 문화, 과학, 기술에 예술적 사고 방식 및 표현 방식을 접목시켜 예술적 실험과 그에 기반을 둔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 ACT는 내부 학과들 사이의 다학제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Comparative Media Studies, History Theory and Criticism,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등의 타 융합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다양한 융합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1년에 최대 4,000달러의 비용을 투자함으로써 실습 및 창작을 장려하기 위한 Pilot Grant 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음

② 미국, BXA/ETC (Carnegie Mellon University, CMU)

- BHA(인문학과 예술의 융합), BSA(과학과 예술의 융합), BCSA(전산학과 예술의 융합) 총

3가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순수 예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전산학, 미디어 등 기존의 전통적 전공 경계를 넘는 융합연구 진행

- 인문학(Writing/Expression, Cultural Analysis 등), 사회과학(Economics, Cognition, Choice and Behavior 등), 자연과학 및 공학의 각 주제별 관련 과목 중 1~2개를 필수적으로 이수함으로써 융합의 기본 소양을 익히고 있으며, 여러 전문성이 강한 학과들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여러 학과들의 교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ETC(Entertainment Technology Center)는 순수예술대학(College of Fine Art)과 컴퓨터 공학 대학(School of Computer Science)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선도하는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설립한 학과로 순수예술에 IT를 접목한 대표적 인력양성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음

- 정해진 커리큘럼이 아닌 철저한 프로젝트 기반 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젝트 또한 기업 의뢰 프로젝트나 학생 제안 프로젝트로 구성됨. 매 학기 시작 전 학생 전체에게 프로젝트 후보안을 공개하면 학생들 스스로 융합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이를 지도교수와 합의하여 채택한 후 한 학기동안 진행하게 됨. 이러한 방식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융합연구를 체화하게 하는 동시에 학습에 대한 자발적 동기 부여를 고취한다는 점에서 훌륭한 사례로 꼽힘

③ 미국, School of Interactive Computing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 미디어, 지능 연구, 인간, 기기 4가지의 큰 다학제적 주제를 아우르는 교육을 목표로 Device, Information, Internetworks, Intelligence, Media, Modeling & Simulation, People, Systems & Architecture, Theory 총 28가지 조합의 전공을 제공

- 각 조합은 약 32개의 전공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Computer Science 과목과 추가적인 분야의 과목을 조합하여 4년의 밀도 있는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유연하게 제공함

④ 미국, College of Arts and Science (University of Washington)

- 예술, 과학, 인문학 38개 전공의 융합 프로그램을 운영. 예술, 과학, 인문학이 종합되어 있어 각 분야의 커리큘럼을 연계해 구성하기 용이하며, Nobel 물리학상 수상자 1명, MacArthur Foundation Fellow 8명, National Academy of Science Member 22명,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Fellow 31명 등 우수한 교수자원을 확보한 것으로 유명함

- 기존의 융합교과목이 융합개념을 학습시키기 위해 각 교과목들의 수준을 하향했던 것과 달리 각 구성과목을 심도있게 학습한 후 이를 바탕으로 융합 개념을 스스로 탐색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음

⑤ 미국, Interactive Telecommunications program (New York University)

- 컴퓨터 기술의 사회적 응용, 물리적 컴퓨팅, 인터렉티브 게임, 멀티미디어 예술 등 하이테크와 예술의 접목을 다루고 있으며, 기술자, 이론가, 디자이너 및 예술가들이 모여 다양한 실험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

- 교과과정은 파운데이션 코스 Tier 1과 디자인 워크샵, 세미나, 인턴쉽 등의 선택 과목 코스 Tier 2, 최종 졸업논문 프로젝트 코스 Tier 3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운데이션 코스 Tier 1은 다시 인터렉티브 기술 응용과정(Application of Interactive Technologies)과 커뮤니케이션 랩(Communication Lab), 물리적 컴퓨팅 입문(Introduction to Physical Computing)과 컴퓨팅 미디어 입문(Introduction to Computational Media)으로 나뉨

- 인터랙티브 기술 응용과정은 대학 학장이 전교생을 직접 지도하며, 아티스트 비영리단체 종사자, 성공한 미디어 인사 등 미국 내 미디어 분야에서 촉망받는 리더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고 강연 주제에 본인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융합연구를 장려함

- 커뮤니케이션 랩은 멀티미디어를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디지털 이미디, 오디오, 비디오,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융합 연구를 장려하며, 기술 구현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적임

- 스폰서쉽이 아닌 기부금 제도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운영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융합연구 수행이 가능함

⑥ 미국, Convergence Program (Olin College of Engineering)

- 1977년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의 필요성과 진보된 공학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부 프로그램으로, 실험실 바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공학적 접근 방식 습 및 문제 해결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춘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음

-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이나 방법을 찾기 위한 협동 프로젝트를 강조하며, 실습, 실기, 팀 프로젝트 위주의 핸즈-온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모든 학생들이 인문, 예술, 공학 기초 수업을 이수해야 하며, 2명 이상의 타 전공 교수들로부터 공동지도를 받는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어 다양한 융합연구를 시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함

⑦ 미국, School of Critical Studies (California College of the Arts)

- Writing Arts, 인문학, 사회과학, 문화연구, 자연과학, Quantitative, Metier Studies, Other Metier Studies 로 총 8개 범주로 나뉘어져 있으며, 해당 교과목들을 이수하는 것이 학부 전체 교육 과정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는 것을 중시함

<표 3-3> 캘리포니아 아트 컬리지의 융복합 교양과정

	교과 과정 개요
Writing Arts, Making Sense of Place	CalArt의 신입생들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과목으로, 비판적 사고능력과 글쓰기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한 학기동안 집중적인 교육이 제공됨
인문학, 사회과학, 문화연구, 자연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문화연구, 자연과학 총 4개의 범주 중 세 개 범주를 선택하여 각 범주별로 정해진 기본교과(foundation course)를 수강하고, 나머지 한 범주에서는 최소 한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해야 함
Quantitative	프로그래밍, 정보기술, 연구방법론에 관한 교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소 2학점을 수강해야 함
Metier Studies	전공 영역의 예술에 관한 역사, 이론, 비평에 관한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소 2학점에서 최대 14학점까지 수강 가능함
Other Metier Studies	전공 이외의 다른 유형의 예술에 관한 역사, 이론, 비평 관련 교과 중 최소한 2학점을 수강해야 하며, 수강 가능한 학점에 대한 제한은 없음
Creative, Critical Writing	이 범주의 교과는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대 8학점까지 수강 가능함

- <표 3-3>에서처럼 해외 대학 내에서는 융복합 교양과정 또한 증설하는 추세이며, 대부분이 다양한 학문들을 통합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옥스퍼드 대학의 경우 철학을 통해 분석 능력과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유 능력을 계발, 정치학을 통해 정치적 협상과 제도적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증진, 경제학을 통해 정책 결정의 토대를 평가하고 자본주의와 산업의 원리에 대한 필수적인 지식 획득을 도모함. 세 분야의 융합을 통해 단일 학문 분야의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 자본주의의 토대와 상부 구조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사회에 대한 통합적인 해석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 융합교육의 필요성이 미래사회를 위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있다는 것을 상기해보면, 결국 융합교육은 실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실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함

- 융합교과목이 전공 과목을 대상으로 기획되기 보다는 교양 과목을 통해 제공되었을 때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을 보임

- 융합교과목을 개설함에 있어서도 융합하고자 하는 학문들이 왜 꼭 융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필히 고려해야 하며, 옥스퍼드대학의 경우 이러한 당위성에 기반하였고, 융합되었을 경우의 시너지 효과가 극명하다는 점에서 특기할만한 사례임

<표 3-3> 해외대학 융복합 교양교육 현황

대학	범주	내용	특징
옥스포드대	학제 간 융합교육	철학 + 정치학 + 경제학 및 심리학 + 철학 + 병리학	융복합 교육의 벤치마킹 모델
케이오대	융합교육	신체지 + 언어지를 총괄하는 복합지 프로그램 개발	지의 공유지 모델
펜실베니아대	융합전공교육	철학 + 정치학 + 경제학 + 법학	성장유망분야에 융합전공과정을 개설
코넬대	연합전공교육	생물학 + 사회학 + 정치학 + 윤리학	인문대 모든 전공자는 필수 이수
스탠포드대	융합교육	음악사 + 과학사 + 아트 이니셔티브	모든 학부생에게 필수로 수강하게 하는 과목
미네소타대	융복합교육	건강저널리즘 + 환경과 건강 + 병리학 + 공중위생 경영 정책	대학원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

- **해외 대학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① 지식습득보다는 창의역량 배양에 초점

- 대부분의 해외 대학 내 융합교육은 단순한 융합방법론의 습득보다 융합을 위한 각 분과의 학문적 기초를 중요하게 여기며,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의 함양,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와 이론적 기초들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함양하는 교육을 강조함

② 강의식 수업보다는 프로젝트성 수업 선호

- 강의식 수업보다는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한 프로젝트 및 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며 소규모로 학습 집단을 구성하여 교수와의 일대일 상호작용의 기회를 다수 제공함

- 현장 실습 장려를 통해 전공분야에 관계없이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원활한 현장 투입 및 학습을 위해 교수와의 일대일 학습을 지원함

③ 학습자 주도 중심의 교육

- 개인의 학습목표에 맞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학습자가 주도할 수 있도록 운영하되 멘토제를 도입하여 개인별 학습관리를 강화함

- 타 학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필요에 따라 학부생의 대학원 과정 교과목 수강이나 대학원생의 학부 교과목 수강도 지원함

④ 비교과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적극적 활용

- 기본적인 전공 능력을 바탕으로 타 영역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교과 과정을 제공하며, 심화 전공 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내 연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함

- 국제적 교류가 융합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국제 교류 활성화를 추진함. 융합연구의 최신 동향을 빠르게 수집하고, 연구 결과물을 폭넓게 공유함으로써 해당 성과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융합연구 설계를 용이하게 함

- 특히 한국은 첨단기술 활용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문화유산 분야에서도 한국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서 국제화 지표 제시 가능

⑤ 전공지식에 충분히 기반을 둔 융합교육

- 융합교육은 학습목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명료한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함. 일반적으로 2-3명의 교수가 팀티칭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담당 교수들의 해당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며, 구성 교과목 각각의 관점과 문제 의식 파악도 선행되어야 함. 또한 교과목의 개발 과정이 기본적으로 해당 의제와 관련된 각 학제의 사유와 고민을 통섭적으로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학문 분과의 학문적 성취를 충분히 고려한 학습 목표와 자료 선정이 이뤄져야 하며, 각 학제의 고전적 지위 또한 충분히 유지되어야 함

- 국내 대학들이 융합교과목 내에서의 분절적 학습을 과도하게 경계한 나머지 오히려 전공 교육에 소홀한 경향을 보이는 것과 달리, 해외 대학들의 경우 학제적 기본기를 토대로 융합이 필요한 파트를 선정하고, 일반교과목과의 차이를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음

⑥ 내실있는 융합교과목 개발을 위해 교수자에게 충분한 시간 제공

- 융합교과목은 여러 학문 분야를 다루는 만큼 교과목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수자 또한 융합교과목을 경험한 바 없으므로 준비과정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융합교과목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공부의 어려움을 부정적 강의평가를 통해 표출함에 따라 융합교과목 운영에 대한 교수자의 동기 부여가 점차 약화되고 있음. 따라서 내실있는 융합교과목을 위해서는 교수자에게 개발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함

2)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합형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 본 대학원 석·박사 과정 졸업생 중 약 67%가 문화유산과 관련된 국·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공공기관(문화재청, 문화재연구소 등), 조사전문기관 등에 취업하고 있음

<표 3-4> 본 대학원의 졸업생 취업 현황(1999~2019)

	학계	박물관·미술관	조사전문기관	공공기관	대학기관	기타	총계
박사	8	5	4	8	0	1	26
석사	1	36	21	23	3	36	120
총계(%)	9(6.2)	**41(28.1)**	**25(17.1)**	**31(21.2)**	3(2.1)	37(25.3)	146(100)

- 특히 최근 10년간 박물관·미술관의 양적 증가 및 대중화는 뮤지엄의 역할을 “교육”에서 “문화 향유”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스마트기술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재미와 체험을 통해 학습을 유도하는 “에듀테인먼트”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

-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본 대학원에서는 현재 박물관·미술관에서 주목하고 있는 빅데이터, 5세대 이동통신(5G),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가상현실(AR/VR/XR/MR)과 메타버스 콘텐츠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실무응용기술공통(14과목)을 구성하여 전공 공부 외에도 문화예술 분야의 시대적 조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표 3-5> 최소학점 이수 및 졸업자격 개편

전공	학점 / 학위	개선 전	개선 계획안		
		전공과목	전공선택	공통필수과목	
				국제화공통	실무응용기술공통
고고학	석사	8과목×3학점(24)	5과목×3학점(15)	1과목×3학점(3)	**2과목×3학점(6)**
	박사	12과목×3학점(36)	8과목×3학점(24)	2과목×3학점(6)	**2과목×3학점(6)**
미술사학	석사	8과목×3학점(24)	5과목×3학점(15)	1과목×3학점(3)	**2과목×3학점(6)**
	박사	12과목×3학점(36)	8과목×3학점(24)	2과목×3학점(6)	**2과목×3학점(6)**

- 실무응용기술공통 기존 8과목에 문화유산 스마트기술 융합교육 관련 4개 교과목(스마트기술융합문화유산학Ⅰ, 스마트기술융합 문화유산학Ⅱ, 문화유산과 빅데이터, 문화유산 디지털 애플리케이션)과 산업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교육 관련 2개 교과목(문화유산 정책과 사회문제,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를 신설하여 석·박사 과정 모두 실무응용기술공통 과목에서 6학점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졸업 자격을 개편함

<표3-6> 교육과정 개선 계획안

전공	학위	현행	개선 계획안		
		전공과목	전공선택	공통필수과목	
				국제화공통	실무응용기술공통
고고학	석사	36과목	28과목	16과목 (기존 과목)	14과목 (6과목 신설, 8과목 기존과목)
	박사				
미술사학	석사	42과목	26과목		
	박사				

<표 3-7> 문화유산 스마트기술 융합교육 관련 교과목

코드	과목명	교과개요
MHJ	스마트기술융합 문화유산학 Ⅰ	문화유산에 접목되는 다양한 스마트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융합 과정과 배경 학습
MHJ	스마트기술융합 문화유산학 Ⅱ	고고학이나 미술사학 등 관련 분야에서 3D, Geo-ICT, 5G, AI, AR, VR 등 스마트기술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사례 연구 및 학습
MHJ	문화유산과 빅데이터	문화유산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정도와 범위를 학습하고 사례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문화유산 연구방법 학습
MHJ	문화유산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3D, GIS 기술 등을 이용하여 문화유산의 측량 데이터, 입면 모델, 3D 모델 활용방법 학습

<표 3-8> 산업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교육 관련 교과목

코드	과목명	교과개요
MHJ	문화유산정책과 사회문제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 등 다양한 정책 현안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학습하여 적절한 대안 모색
MHJ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훼손되거나 사라진 문화유산을 복원하거나 문화재 전시의 새로운 대안으로 이용되는 디지털 문화유산에 대한 관련 사례와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하는 디지털 문화유산의 다양한 콘텐츠 학습

- 2021년 1학기 <문화유산과 빅데이터> 교과목을 개설하여 빅데이터가 문화유산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탐색하고, 각 수강생들의 연구 분야가 반영된 개별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문화유산 관련 기획 및 응용 역량을 배양하는데 기여함

- 문화유산, 문화기술, 빅데이터의 실질적 연계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각 수강생들의 관심 분야 및 해결을 요하는 문화유산 관련 현안들을 도출하고, 이를 프로젝트로 기획하여 한 학기동안 빅데이터 및 네트워크 분석법을 체화함

- 전통적인 고고학 및 미술사방법론과 다른 네트워크 분석법, 공학적 분석법, 메타 데이터와 아카이빙을 통해 문화유산을 다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이를 통해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융합적 시각을 고취하고,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 창조적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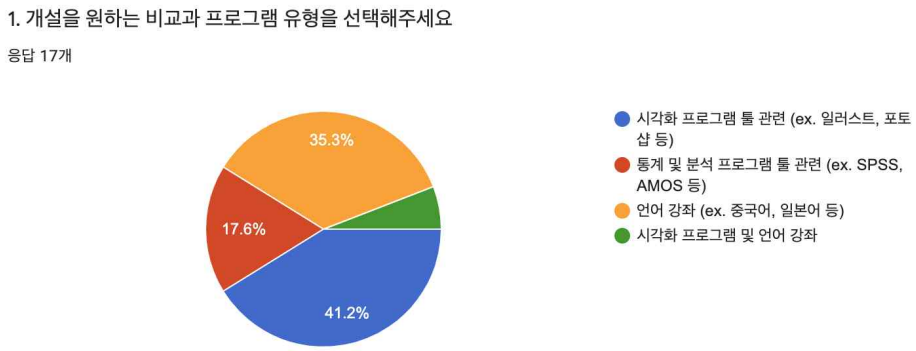
- 각 수강생들의 연구결과물들은 책으로 엮어 출판함으로써 이후 문화유산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전공자들에게 정보 제공

<표 3-9> “문화유산과 빅데이터” 교과목 커리큘럼

주	기간	회차	학습내용	교재	활동 및 설계내용
1	2021.03.09	1	수업 오리엔테이션	Lecture Slides	강의 및 질의응답
2	2021.03.16	2	문화유산과 문화기술(CT) 발전 동향	Lecture Slides	강의 및 질의응답
3	2021.03.23	3	빅데이터의 개념 및 특징	Lecture Slides	강의 및 질의응답
4	2021.03.30	4	빅데이터 활용 사례- 일반산업편	Lecture Slides	강의 및 질의응답
5	2021.04.06	5	빅데이터 활용 사례- 문화산업편	Lecture Slides	강의 및 질의응답
6	2021.04.13	6	빅데이터 활용 사례- 학술연구편	Lecture Slides	강의 및 질의응답
7	2021.04.20	7	빅데이터 생성을 위한 공학적방법론	Lecture Slides	강의 및 질의응답
8	2021.04.27	8	**프로젝트 프로포절 발표**	Lecture Slides	발표 및 토론
9	2021.05.04	9	빅데이터 생성을 위한 네트워크분석법	Lecture Slides	발표 및 토론
10	2021.05.11	10	네트워크 분석 툴 실습	Lecture Slides	강의 및 질의응답
11	2021.05.18	11	빅데이터와 아카이빙(Archiving)	Lecture Slides	강의 및 질의응답
12	2021.05.25	12	**프로젝트 중간 발표**	Lecture Slides	발표 및 토론
13	2021.06.01	13	빅데이터와 데이터시각화	Lecture Slides	발표 및 토론
14	2021.06.08	14	빅데이터와 HCI, UX, UI	Lecture Slides	발표 및 토론
15	2021.06.15	15	**프로젝트 최종 발표**	Lecture Slides	발표 및 토론
16	2021.06.22	16	프로젝트 평가 및 토론	Lecture Slides	강의 및 질의응답

3) 융합기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 참여인력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및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를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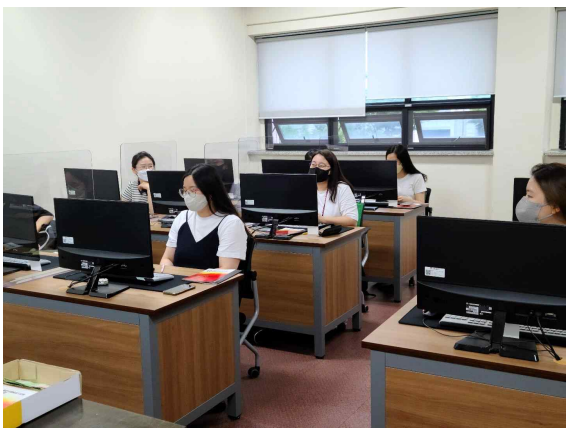
- 열흘 간의 설문조사 결과, 시각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확인한 바 2021년 1학기 <일러스트레이터 활용>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하고 운영함

- 2021년부터 6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한 달간 매주 2회씩 총 10회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수업시간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총 20시간 동안 진행함

- 일러스트 활용 능력은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포스터,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필수적 소양으로, 본 대학원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본적인 개념과 필수적 기능 습득을 교육함으로써 향후 관련 직종으로 취업시 해당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GTQ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 대비반을 운영하여 향후 취업 시 우수한 실무 역량을 증명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총 11명의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으며, 현재 참가자 전원이 비교과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자체 스터디를 통해 GTQ-I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음



<표 3-10> 일러스트레이터 수업 커리큘럼

교육차수	학습 목표	학습내용
1일차	- 레이어 개념 이해 - 색상 스포이드 활용 - 문자 아웃라인 이해 및 습득 - 라인작업 습득 및 라인 패스	삼성과, LG심볼 제작
2일차	- 색상 팔레트 이해 및 활용 - 패스파인더 습득 - 치수설정, 회전도구, 정렬작업	태극기, 성조기 제작
3일차	- 선 치수설정 및 견본검색 활용 - 정렬, 각도조절, 반복작업	바둑판 제작
4일차	- 블렌딩 효과 습득 - 나선형 효과 습득 - 분무기 효과 습득	음악포스터 제작
5일차	- 포토샵 병행 작업 습득 - 마스크효과 습득 - 패스문자 활용 및 문자변형	CD 제작
6일차	- 패턴 활용/ 습득 - 그림자효과 적용	과자포장지 제작
7일차	- 그라디언트효과 습득 - 펜기능 습득	인공물 일러스트 제작
8일차	- 심화 그라디언트효과 - 펜기능과 망도구 활용	자연물 일러스트(사과) 제작
9일차	- 다양한 기능 복습 습득	캐리커쳐 제작
10일차	- 다채로운 문자 응용	캘리그래피, 네온 효과, 입체글자

- 앞선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1년 2학기에는 고고학 및 미술사연구에 필수적인 중국어 혹은 일본어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

- 참여인력의 변화하는 니즈 및 뮤지엄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2022년에는 새로운 비교과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통해 효용성있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4)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 진행

- 3D 스캐닝은 고고학 분야의 발굴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나 아직까지 유물의 특성과 스캐너의 종류를 매핑한 연구가 부재함. 이에 본 연구팀 대학원생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공동 연구를 통해 재질별 유물과 4가지 종류의 3D 스캐너의 최적의 조합을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1) 기초 실측 실습

고고학에서의 유물 기록법에 대한 기본 지식 습득을 위하여 기초 실측 실습을 약 3주 동안 진행함. 다양한 크기의 도자기 10점을 활용하여 실측 실습을 수행하였으며, 유물 실측을 통해 캘리퍼스·디바이더·바디 등의 기구 사용법을 익혀 입체적인 유물을 2D 평면에 기록하는 방법을 습득함. 이를 통해 유물 관찰력을 향상하고, 실측의 한계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3D 스캐닝의 활용 방향을 재고하는 기회를 가짐

2) 3D 스캐너 기본 교육 실습

Artec EVA, Next Engine, 광학식 스캐너를 활용하여 실습을 시행함. 청자·청화백자·분청사기 등으로 유약의 반짝임의 정도가 서로 다른 유물 7개를 스캐닝해봄으로써 각 스캐너 사용의 숙련을 도모하였으며, 스캐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빛 반사나 스캐닝 중 유물을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습득

3) 최종 유물 선정 및 스캐닝

고고환경연구소에 소장된 10점의 유물을 최종적으로 스캔하였으며, 스캔 데이터는 아텍스튜디오, 디자인X와 같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델링 이미지를 출력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5)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 본 연구팀이 속한 학부는 2017년에 고고미술사학과에서 문화유산융합학부로 개편, 고고미술사학전공과 문화ICT융합전공을 신설함. 하지만 문화ICT의 활용이 본격화된지 오래되지 않은 탓에 정규 교과목만으로는 해당 분야의 실제 업무나 관련 업계의 추세를 파악하기 힘듬

- 이에 본 연구팀에서는 다양한 문화ICT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진로탐색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으며, 2021년 1학기에만 총 8회의 콜로키움을 진행함

- 해당 콜로키움은 본 대학원 학생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유네스코를 비롯하여,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 디지털 콘텐츠 기획가, 카카오 브레인 사업개발 분야 등 미래 사회가 요하는 문화콘텐츠 관련 분야를 다각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강연자의 실제 경험담에 기반하여 관련 분야로 취업을 원할 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팁과 조언들을 함께 제공하였으며, 본 대학원을 졸업했을 시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야 외에도 새로운 진로를 탐색할 수 있음을 제시함

- 이 밖에도 본 대학의 산학연구팀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취업 콜로키움을 최소 5회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본인의 진로를 스스로 디자인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1.2 차년도 목표 및 계획

- 우수 대학원생 확보를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CURT 외에도 학부-대학원 연계 프로젝트, 학부생 대상 논문 공모전, 학부생을 위한 대학원생 멘토 제도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

- 성공적인 인력 배출을 위해 논문 예비 심사자와 본 심사 대상자를 학기별로 관리하는 현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며, 전업 학생이 아닐 경우에도 연구 진행 과정을 추적 및 검토할 수 있는 온라인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

<표 3-11> 2021년 봄 학위논문 심사 대상자 명단

2021 동계 미술사학 전공 예비심사(2021년 봄 미술사학 전공 본 심사 대상자)			
	2021년 2월 20일	진행 방법	ZOOM
	이름	과정	발표주제
1	심재원	석사	통일신라 도기 소병 연구
2	송민하	석사	조선 전기 광주 관요와 지방요 출토 자기 비교 연구
3	HA AMIE	석사	근대 미국의 한국도자 컬렉션 연구

<표 3-12> 2021년 가을 학위논문 심사 대상자 명단

2021 하계 미술사학 전공 예비심사(2021년 가을 미술사학 전공 본 심사 대상자)			
	2021년 08월 21일	진행 방법	대면(문화융합관 213호)
	이름	과정	발표주제
1	이정민	박사	영국 조지안 시대(1717-1830) 대중 무역도자 연구 : 우스터 자시회사를 중심으로
2	고은이	석사	조선시대 백의 관음도 연구
3	조재민	석사	19-20세기 법주사 화승 교류 연구
4	김경은	석사	조선후기 원사대가 방작회화연구
5	송민하	석사	조선 전기 광주 관요와 지방요 비교 연구
6	김경인	석사	고려시대 중국 송대 남방백자 소비 경향 연구
7	이명선	석사	조선후기 호문 백자 연구
8	강승민	석사	조선미술전람회 공예부 도자 출품작 경향성 연구

- 융합교과목의 실질적인 효용을 담보하기 위해 “팀-티칭(Team Teaching)” 교과목을 개발할 예정. 융합 연구가 무엇인지 스스로 체득하기 힘든 학생들을 위해 BK 참여교수들이 학문 분야 간 경계를 넘는 주제를 발굴 및 토론하는 교과목을 만들어 학생들이 융합 연구 과정을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나아가 창의적인 연구 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도모할 예정

- 프로젝트형 교과목을 확대하여 대학원생들이 정규 교과목 내에서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학기 내에 다루지 못한 후속 연구들은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연결하여 장기 프로젝트로 지원할 계획

- 현재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진로탐색 콜로키움을 1학점 세미나 수업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이 보다 많은 연구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초청 연사와의 멘토링 제도를 강화할 예정

- 1~2차년도에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당초 연구팀이 계획했던 인턴쉽이나 현장 실습을 수행할 수 없었으나, 3차년도부터는 국내·외 발굴 현장이나 박물관 현장 학습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

Ⅳ

연구 역량 영역 목표 달성 실적

1 연구 역량 영역 목표 달성 실적

1.1 세부 목표 및 달성 정도

목표	달성 정도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논문 게재 시행 · 재정적 지원	40%
대학원생 학술세미나 운영 지원	100%
BK21 연구팀 정기세미나 개최	50%
국제 공동조사 및 연구 시행 · 재정적 지원	10%

1) 국제학술대회 참가 및 학술지 게재 시 행·재정적 지원

- 참여인력의 연구역량 향상 및 연구실적 발표를 독려할 수 있도록 논문게재료, 심사료, 영문번역료 등을 지원하였으며, 논문게재료는 1편당 3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원하였음

- SEAA 2021 Online Student Conference는 SEAA와 경북대에서 공동 주최한 국제학술대회로, 동남아, 태평양, 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등 동아시아 고고학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다루었음. 특히 이번 학회에서는 동아시아 고고학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 지리적 경계를 넘나드는 주제, 특정 유적지, 지역 및 문화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발표가 진행되어 본 연구팀 소속 대학원생들의 연구 주제와 부합하였으며 연구 교류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

- 본 학술대회는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팀의 미술사 전공 4명 고고학전공 7명 총 11명의 대학원생이 발표자로 참여함

▶ 6월 26일(토)

	주제	시간	발표자	제목
Room 1	Inter-regional studies,	16:00	이정훈	The study of residential area during Balhae period
			송지호	A Study on the Flow and Consumption Patterns of Japanese porcelain in the Mordern Era through the Excavation of Hanyang Doseong

Room 3	Settlement patterns, state formation, social complexity	20:00	진영민	Architectural Changes of Capital City Palaces in Ancient China : A case of Xianqin era capital cities

▶ 6월 27일(일)

	주제	시간	발표자	제목
Room 1	Household archaeology and daily life in Chinese and Korean archaeology	11:00	박동주	Applications of Micromorphology to Understanding Use of Space in Prehistoric Houses, South Korea: A case of the Hajung-dong site
Room 2	Kiln sites (Korea, Japan)	11:00~	전현기	A study on the Architecture remains and Workshop site of the Goryeo Celadon kiln site of Buan Yucheon-ri
			안세진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the Kiln Sites of Production of Buncheong wares Excavated from the Taesil in Seongju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s reign of the Joseon Dynasty
			오선경	A Study on the Diversity of Goryeo Celadon Technology genealogy through Goryeo Celadon kiln.
Room 3	Craft production and technology	11:00	이동건	The study of the iron farming tools in Goguryeo

▶ 6월 28일(월)

	주제	시간	발표자	제목
Room 1	Trade, exchange, and sourcing of materials (East Asia)	9:00	김희태	A Study on the Artifacts related to the Western Regions of the Eastern Jin Dynasty and Southern Dynasties Periods, China

	Burial practices (East Asia)	17:00	정슬주	The study of provincal hierarchy during Unified Silla period -Based on roof end tile-
Room 2	Ritual and religion (East Asia)	9:00	손정미	A Study on Ring Ditches of Bronze Age in Hoseo Area, South Korea

- 학술논문의 경우 2021년 1학기까지 총 2편의 국내저널을 게재함

연번	교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전공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1	공헌배	11090498	고고학	국내 저널	문익환의 예언시 연구 (2021)
					신학사상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pp. 265-292
	본 연구의 목적은 아브라함 요수아 헤셸(A. J Heschel)의 관점으로 문익환의 시를 분석하는데 있다. 문익환의 시인적 패턴에는 구약의 예언자들과의 동질성 및 차별성이 드러났다. 그 중 가장 뚜렷한 차이는 신비적 요소에 있다. 그리고 역사의식에 있어서의 차이이다. 구약의 예레미야와 이사야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여론을 거스르는 듯 했지만, 문익환은 민주, 자주, 통일, 민족 등 다수의 민중이 동의할만한 시대순응적 패턴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문익환은 이와 같은 시대순응적 패턴으로 그 시대의 정치 현실에 대해 저항한 사상가였지만, 민중에게 낯선 패턴의 주장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예언자들과 문익환과의 공통성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시로 썼다는 데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구약의 예언시들은 타율성(신의 의지)이 강한 데 비해 문익환의 자신의 역사의식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2	공헌배	11090498	고고학	국내 저널	한국 개신교회의 기복신앙 연구 (2021)
					한국학연구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제 76집
					pp. 3-34
					DOI: 10.17790/kors.2021.03.76.5

본 연구의 목적은 종교 개혁가들의 교리문답에 나타난 주기도문의 주해 중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라는 구절에 대한 해석들을 살핌으로써, 한국 개신교회의 기복신앙적 요소를 비판하는 데 있다.
 한국 개신교회의 교인들이 자주 말하거나 간증해 왔던 주장들 가운데 한 가지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또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라는 것들이었다. 한국 개신교회 안에서는 실지로 예수를 믿은 뒤 놀라울 정도로 복을 받은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그래서 급기야 한국 개신교회는 기독교로서의 모습보다도 ‘기복신앙(祈福信仰)’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기도 한다. 한국의 개신교회들 안에는 ‘삼박자 축복론’이나 새벽기도를 통한 기도응답의 간증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십일조’헌금조차도 기복적 요소로 말해진다. 사실 기독교의 전통대로 한다면 십일조는 기복적 요소라기보다는 구제나 선행의 요소로 활용된 점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개신교회에서는 그 십일조조차도 기복적으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의 신앙행태는 종교개혁의 교리와는 다르다는 점들이 드러났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들의 상당수는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만 그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자국의 문화에 적지 않게 영향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개신교회가 바람직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문화나 관습의 힘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 서양과 같은 요구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 상대주의를 인정한다면 기복신앙도 긍정할 수 있을 듯하다.

2)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 2021년 1학기 “BK21 연구팀 발해고고학 연구의 성과와 쟁점”을 주제로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함. 본 학회를 통해 연구팀의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인 “발해 고고학”의 2000년대 이후 성곽, 건축, 고분 및 주요 유적, 토기와 와당 및 무기, 장신구 유물 발굴 조사 성과를 공유함. 그간 한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 및 일본에서 행해진 발해 고고학 연구 성과와 쟁점을 점검하였으며, 향후 연구 방향 또한 함께 모색함

<표 4-1> “발해 고고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학술대회 시간표

시간	주제	발표자
13:00	개회	사회: 최종택
13:00~13:40	발해 연구의 현황과 쟁점	송기호(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3:40~14:00	발해 도성과 성곽 연구의 성과와 쟁점	양시은(충북대학교 교수)
14:00~14:20	발해 고분 연구의 성과와 쟁점	강현숙(동국대학교 교수)
14:40~15:00	발해 유물 연구의 성과와 쟁점	최종택(고려대학교 교수)
15:00~15:20	연해주지역 발해 고고학 연구의 성과와 쟁점	정석배(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15:20~17:00	종합토론	좌장: 강현숙 토론자: 이동건, 이정훈, 정슬주

- 본 연구팀 참여교수인 최종택 교수가 진행과 사회를 맡았으며, 송기호(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양시은(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강현숙(동국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정석배(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융합고고학과 교수)를 초대하여 연구 성과를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본 연구팀 소속 대학원생인 이동건, 이정훈, 정슬주 학생이 종합 토론에 참가함

3) 대학원생 자체 학술세미나 운영 지원

- 연구팀 참여인력의 연구 활동 강화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원생 자체 세미나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적극적인 학술활동 활성화를 도모함

- 본 대학원 내 세부전공에 따라 총 6개의 학술세미나 팀을 구성하였으며, 각 세미나 팀 규모에 따라 운영비용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연구 기반 조성

<그림 4-1> 대학원생 자체 학술세미나 구성

- 매 학술세미나 운영시 “학술세미나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연구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학술세미나 운영 현황 및 결과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팀 소속 외 대학원생에게도 공개 및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2021년 3월부터 현재까지 “CHST01 선사고고학”은 총 6회, “CHST02 역사고고학”은 총 9회, “CHST03 도자사 전공”은 총 19회, “CHST04 학술서 번역”은 총 1회, “CHST05 회화사 전공”은 총 12회, “CHST06 불교미술사 전공” 총 1회의 학술세미나를 개최함

<표 4-2> 대학원생 전공별 자체 학술세미나 구성 및 지원 예산

연번	학술활동 번호	학술활동 명	세부예산(원)
1	CHST01	선사고고학	400,000
2	CHST02	역사고고학	300,000
3	CHST03	도자사 전공	500,000
4	CHST04	학술서 번역	300,000
5	CHST05	회화사 전공	400,000
6	CHST06	불교미술사 전공	100,000
합계			2,000,000

4) 고고학/미술사 콜로키움 진행

- 지도교수의 주관 아래, 고고학/미술사학 전공 대학원생 전원과 지도교수가 참석한 전공별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학생들 간 연구진행 과정 공유 및 Peer-review 진행

- 2021년 1학기 기준, 미술사 콜로키움 2회, 역사고고학 콜로키움 4회, 선사고고학 콜로키움 3회 개최하였으며, 향후에도 콜로키움 개최를 통해 학생들의 개별연구에 대한 밀착 지도를 도모할 예정

<표 4-2> 2021년 1학기 지도교수별 콜로키움 진행 현황

연번	지도교수	학술활동 명	진행회차
1	방병선, 김윤정	미술사콜로키움	2회
2	최종택	역사고고학	4회
3	이홍종, 손준호	선사고고학	3회
4	조윤재	KU고고학	1회
합계			10회

5) BK21 연구팀 동/하계 세미나 운영

- 연차별로 동/하계 정기세미나를 운영함으로써 한 학기동안 진행된 대학원생들의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연구 내용에 대한 참여인력 간 토론 기회 제공

- 대학원생들의 연구 진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적 및 지도함으로써 다양한 연구내용들이 학위논문, 학회발표, 학술지 투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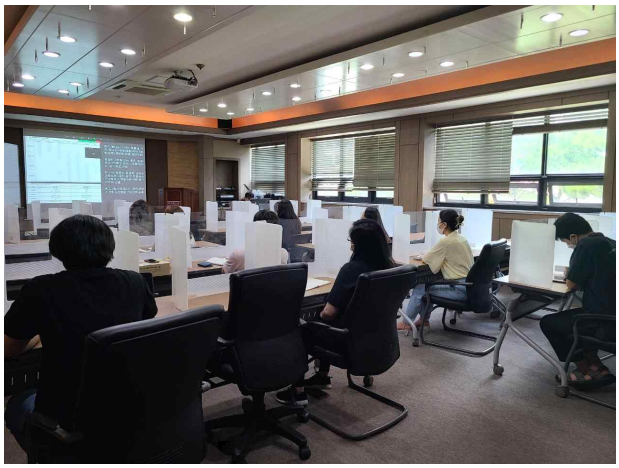
- 2021년 1학기에는 7월 12일 13시에서 17시까지 실시간 온·오프라인으로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총 6명의 대학원생들이 연구내용을 공유함

- 참여교수의 집중 지도 시간 및 종합토론 시간 병행을 통해 각 대학원생들이 연구 방향성을 논하고 진행 방안을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발표 시간	이름	제목	개요
1:00-1:30	진영민	中國 漢代 官印封泥 編年 再考	封泥에는 필연적으로 당시 사용된 印章이 반영되어 있어서 문헌자료와 직접적인 비교연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존하는 봉니에는 '假品으로 제작된 封泥'가 섞여 있으므로 관련 연구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가품봉니가 포함된 전세봉니자료가 논의의 근거로써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봉니의 편년에도 순환논리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여 가품봉니를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인지하고 대안으로써 출토 정황이 확실한 봉니를 대상으로 편년을 재론하였으며, 동시에 선행연구의 기존 편년을 검증하였다. 결과적으로 선행연구의 편년과 비교했을 때 봉니 형식 변화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정합하지만, 동시에 불일치하는 지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봉니의 형식별 발생시기와 존속기간이 양자의 편년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일부 봉니의 형식만을 기준으로 전체 漢代 봉니를 편년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반드시 印文의 字體와 봉니의 형식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나아가 봉니의 편년은 연대기준품 표본수량의 한계로 아직 안정적인 단계에 올라섰다고 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신자료의 확보와 검증작업이 필요한 연구 분야이다. 본고의 분석은 향후 동 시기의 邊郡인 樂浪 출토 봉니의 미시적 재검토를 위한 예찰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1:30-2:00	한지수	《영조병술진연도병》 연구	본 발표는 영조병술진연도병을 중심으로 17, 18세기 병풍장황의 기록화를 연구해보고자 합니다. 기록화병풍은 원래 계회도의 병풍형식인 계병으로 관리들의 사적인 모임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18세기에 들어 체계적인 구성을 갖추어가기 시작하며 이후 궁중기록화의 전형으로 변형, 확대 됩니다. 본 발표에서는 먼저 17세기 계병의 발생과 제작양상을 살펴본 이후 《영조병술진연도병》을 중심으로 18세기 기록화 병풍의 제작양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0-2:30	이동건	고구려 철제 농기구 연구	철제 농기구는 고대 사회의 철기문화와 농경문화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고구려는 백제나 신라보다 이른 시기에 우수한 철기문화와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거 고구려 영역과 출토자료에 대한 접근의 한계로 고구려의 철기 자료 중에서도 철제 농기구는 세밀하게 검토되지 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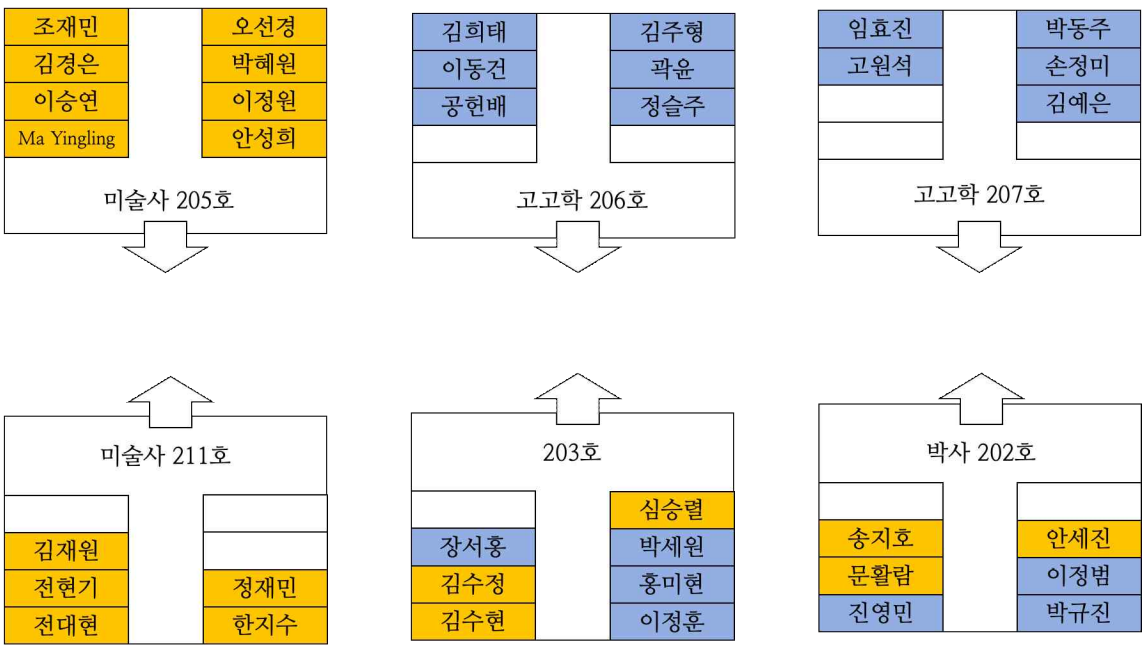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굴 및 보고를 통해 최근까지 축적된 고구려의 철제 농기구 자료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3:00-3:30	박동주	토양미세형태 분석을 통한 시흥 하중동 유적의 신석기시대 주거지 내부 이용 양상 연구	주거지는 인간이 거주하면서 형성된 고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물로만 주거지 내 생활상을 복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거지 내에서 나타나는 거주 활동 양상과 후퇴적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토양 미세형태분석법을 통해 주거지 내 공간 이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고는 하동중 유적 내 신석기 주거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바닥면에서는 생토면과 생활면층의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와는 달리 의도적인 바닥의 정면 작업이나 공간 분할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신석기시대 당시의 미약한 축조 기술을 나타낸다. 그리고 노지에서는 자체의 온도가 낮거나 노지 내부에 다른 토양과 섞이며 소성의 영향이 다소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추후 청동기시대 주거지 샘플들과 비교하여 주거 양상과 축조술의 변화 흐름을 파악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3:30-4:00	조재민	법주사 불화로 보는 19-20세기 화승 교류 관계 연구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는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속리산에 자리해 있다. 법주사는 통일신라시대 창건되었다고 전한다. 고려시대에는 여러 문헌에서 속리사라는 이름으로 확인되며 지속적으로 왕실의 후원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법주사는 조선시대에도 왕실의 후원을 받으며 번창하였다. 이러한 법주사에 남아 있는 불화는 대부분에 화기가 잘 남아 있어 불화를 그린 화승은 물론이고 불사를 주도한 승려들과 시주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이들 불화를 그린 수화승들이 19-20세기 전국 각지에서 활동한 주요 불화승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조선 후기 불화승 연구는 화승 개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화파를 구분할 때도 주요 활동 지역을 기반으로 사제관계를 통해 유파를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법주사 사례에서와같이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던 화승들이 한 사찰에 모여 함께 불화를 제작한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Ⅱ장에서 조선 후기 왕실에서 특정 사찰에 원당을 설치함으로써 사찰에 후원하였던 것과, 법주사에 수 차례 원당이 설치된 것을 통해 법주사가 지방 산사임에도 권위 있는 사찰이었음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어서 Ⅲ장에서 본격적으로 불화와 제작한 수화승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시 전국에서 활동했던 화승들이 법주사에서 교류할 수 있었음을 알아보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불화의 화기 속 불화불사를 주도하는 증명법사, 화주와 불사의 재정을 지원한 시주자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화승 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단 이유를 찾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 법주사 불화를 제작하는 데 참여한 인물들을 연결하여 일반적으로 사제관계의 수직 구도로 이루어진 화승 연구에서 더 나아가 협업을 통한 수평 구도의 영향 및 교류 관계가 있었음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법주사가

			가졌던 위상을 확인하고, 조선 후기 화승 연구에 있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4:00- 4:30	이정훈	발해 주거 건축 연구	러시아, 중국, 북한에 존재하는 발해 건축지 중,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축유구들이 연구 대상. 각 유구들의 성격에 따라 위계를 나누고, 그 위계마다 어떤 건축적 특성이 있는지 분석



6) 대학원생 연구 공간 지원

- 본 연구팀에서는 참여인력들의 전용 연구공간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지도 및 과제 수행을 도모함. 특히 본 대학원이 미술사와 고고학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고려하여. 전공 분야별 학생 배치를 통해 심도있는 연구 교류가 가능하도록 함



7) 국제 공동조사 및 연구 시 행·재정적 지원

-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국제 공동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국제화 역량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은 체계적으로 마련해놓은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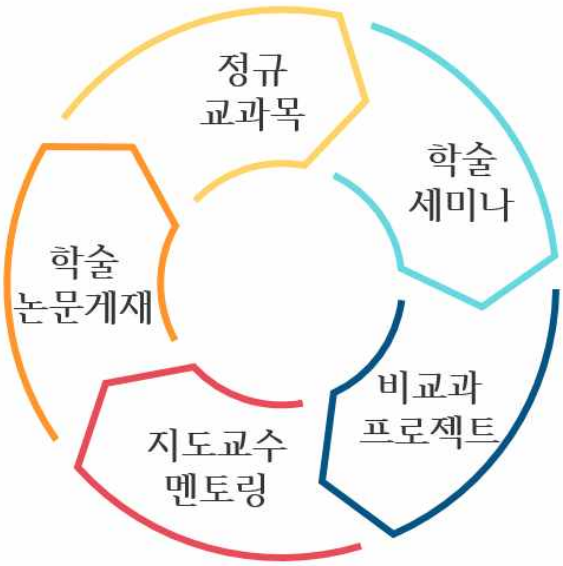
- 연구성과가 우수한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의 해외연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외 현지조사, 현지조사 관련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며, 해외연수에 필요한 경비는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과 『4단계 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및 본교의 여비 규정을 준수하여 지원(항공료, 체재비 등)할 계획임

- 해외연수 대상은 본 연구팀 자체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발 예정

<표 4-3> 대학원생 해외연수 신청서 평가 항목 및 선발 기준

<table>
<tr><th></th><th colspan="2">평가항목</th><th>배점(총점 100점)</th></tr>
<tr><td rowspan="5">심사내용</td><td colspan="2">연구과제의 학술적 가치</td><td>30점</td></tr>
<tr><td colspan="2">연수의 준비 현황</td><td>20점</td></tr>
<tr><td colspan="2">연수활동의 타당성</td><td>20점</td></tr>
<tr><td colspan="2">활용과 기대효과</td><td>20점</td></tr>
<tr><td colspan="2">연수 경비의 적절성</td><td>10점</td></tr>
<tr><td colspan="4">등급평가 및 선발</td></tr>
<tr><td>A (선발)</td><td>B (보완 후 선발)</td><td>C (보완 후 재심사)</td><td>D (불가)</td></tr>
<tr><td>100~90</td><td>89~80</td><td>79~70</td><td>69~0</td></tr>
</table>

1.2 차년도 목표 및 계획



<그림 4-2> 정규교과목에서 학술논문 게재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

- 1~2차년도까지 참여대학원생들의 학술논문 게재 실적이 다소 저조했던 바 차년도부터는 정규 교과목에서 습득한 학습 내용이 대학원생 자체 학술세미나에서 복습 및 심화되도록 유도하고, 본 스터디 내용을 발전시켜 비교과 프로젝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함.
- 이러한 연계를 통해 학습 내용이 산업 현장 및 실무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지도교수의 적극적인 멘토링을 통해 융합 방법론 체화 및 학술논문 게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고자 함
- 학술논문 게재 내용은 단순히 게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규 교과목에서의 학습을 통해 학위논문으로 심화시킬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함
-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수행한 프로젝트 결과물들이 학술논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작성 특강 혹은 세미나를 운영할 예정
- 정규교과목에서 학술논문 게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통해 연 최소 3편의 대학원생 연구논문을 게재하고자 함

V

국제화 역량 영역 목표 달성 실적

1 국제화 역량 영역 목표 달성 실적

1.1 세부 목표 및 달성 정도

목표	달성 정도
해외학자 초청 강연 개최를 통한 국제 학술연구의 조류 파악	90%
국제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국제 학계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70%
국제 학술대회 참가 및 국제 저널 게재 독려 및 행 · 재정적 지원	20%
2020 QS 세계대학평가 50위 성과 유지	20%

1) 해외학자 초청 강연 개최를 통한 국제 학술연구의 조류 파악

- 본 사업단은 해외 연구 교류 및 국제화 달성을 위해 해외 석학 초청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고고학 및 미술사학 분야의 저명학자를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국내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해외 고고학 및 미술사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통해 고고학 및 미술사 연구의 세계적 조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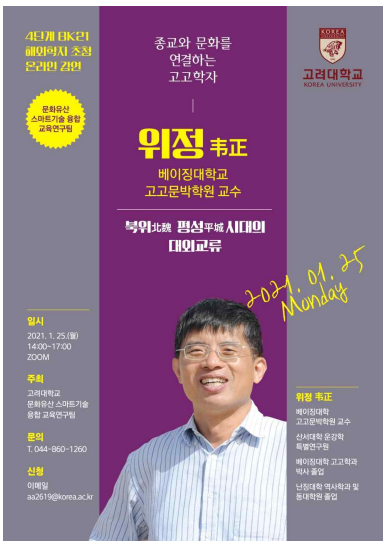
- 동일한 유물 혹은 유적이라도 국가별로 다양한 인식과 해석을 가질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연구를 위해서는 거시적, 다각적, 융합적 관점이 중요함을 전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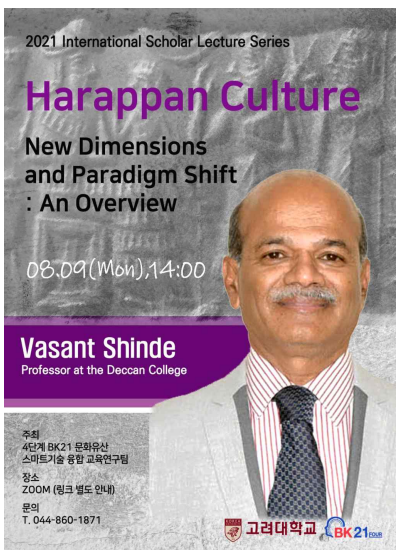
- 2020년 2학기에는 총 3차례, 2021년 1학기에는 총 4차례 해외학자 초청강연을 진행함.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ZOOM을 활용하였으며, 강연 후 토론을 통해 상호 간 연구 소개 및 교류 기회를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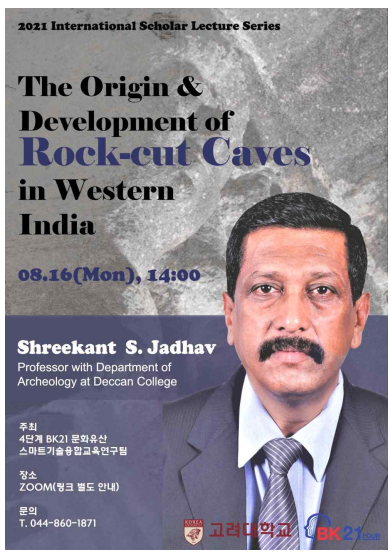
<표 5-1> 2020~2021년 해외학자 초청강연 개최 현황

	강연자/소속	강연 주제
2020년 2학기	쇼다 신야(Shoda Shinya) 일본국립문화재기구 나라문화재연구소 실장	선사시대 자연자원 이용을 밝히기 위한 분자레벨의 고고학
	위정(韦正) 베이징대학교 고고문박학원 교수	북위(北魏) 평성(平城) 시대의 대외 교류

	류자오후이(劉朝暉) 푸단대학 문물 및 박물관학과 교수	당대 청화자기의 재검토
2021년 1학기	다카타 칸타(Dakata Kanta)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연구부 교수	고고학으로 본 삼국시대 한일교섭
	바산트 신데(Vasant Shinde) 인도 데칸대학 고고학과 교수	Harappan culture: New Dimensions and paradigm shift
	시리칸트 야다브(Shreekant Jadhav) 인도 데칸대학 고고학과 교수	The Origin & Development of Rock-cut Caves in Western India
	무하메드 칸(Muhammad Ashraf Khan) Taxila Institute of Asia Civilizations 교수	Buddhist Heritage of Gandhara
	카타야마 마비(Katayama Mabi) 동경예술대학 예술학과 교수	倭館과 도자기







2) 국제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국제 학계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 본 연구팀은 국제 연구 및 학생교류를 위해 국제 학술대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시도로 본 대학원과 오랜 기간동안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온 터키, 이탈리아, 독일 학자들과 함께 <제 1차 한국-터키 국제학술대회- 고대 도시 유적의 발굴 성과와 활용 방안(가제)>를 개최하고자 함

<표 5-2> 4단계 BK21 국제 연구 및 학생교류를 위한 국제학술대회 시간표

제 1차 한국-터키 국제학술대회 "고대 도시 유적의 발굴 성과와 활용 방안"(가제)				
1부: 국내학자 발표 세션				
한국시간	**터키시간**	**강연자**	**소속**	**발표 주제**
PM3:00	AM9:00	이홍종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	나성리 도시 유적의 발굴 성과와 활용방안
PM3:30	AM9:30	조윤재 /진영민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 &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 수료	중국 고대 도시 발굴 성과와 활용 방안
PM4:00	AM10:00	안형기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문화유산융합학부 겸임교수	터키 중부 아나톨리아 일대 고고 유적에 대한 디지털 고고학 방법 적용
PM4:30	AM10:30	박진호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	디지털 헤리티지 분야의 최근 성과와 활용 방안
2부: 해외학자 발표 세션				
한국시간	**터키시간**	**강연자**	**소속**	**발표 주제**
PM5:10	AM11:10	피키리 쿨라코올루 Fikri Kulakoğlu	Ankara Üniversitesi 언어역사지리학부 근동고고학과 학과장, 전임교수	Protecting and the Promotion of the Colony Period Cultural Heritage in Kultepe by Digital Technologies
PM5:50	AM11:50	안드레아스 샤하네 Andreas Schachner	Würzburg Universität 철학학부 고전연구소 교수	Studying the Hittites through Digital Technologies

PM6:30	AM12:30	루카 페이론 Luca Peyrone	밀라노대학교 문학 언어학부 근동고고학과/예술사학과 전임 교수	Digital Project for the Analysis of Ebla Landscape
3부: 대학원생 발표 세션				
한국시간	**터키시간**	**강연자**	**소속**	**발표 주제**
PM 7:40	PM 1:40	최지연	큘테페-카니쉬 연구원	The Origin of Hittite Art in the Light of Archaeologica
PM 8:10	PM 2:10	지한 아이	큘테페-카니쉬 연구원	Pleasant Experiences at Korea University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of the Program
PM 8:40	PM 2:40	김예은 오선경 김희태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과정	4년의 기억, 새로운 길을 찾아보다(고려대학교-앙카라대학교 학술 교류 프로그램)
PM 9:10	**PM 3:10**	**질의응답 & 토론**		

3) 국제 학술대회 참가 및 국제 저널 게재 독려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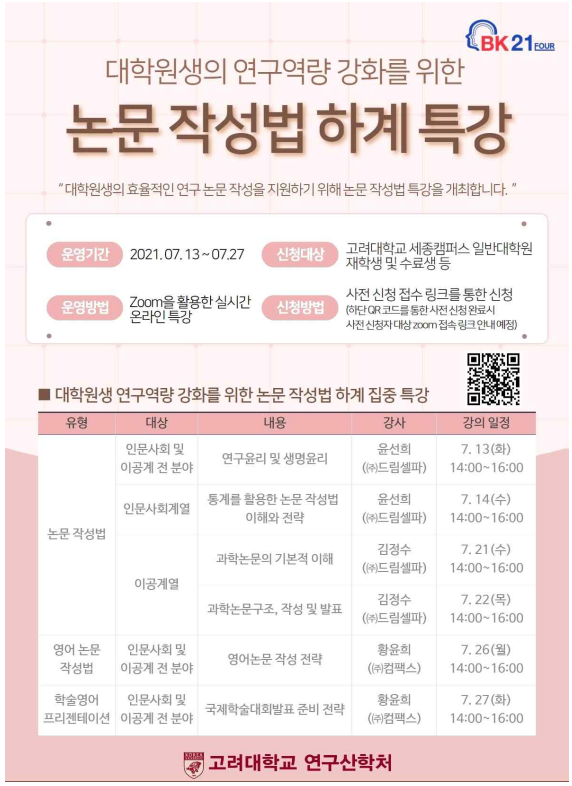
- 우수한 학술연구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게재, 발표하도록 권장하여 본 연구팀의 학술연구 활동 활성화에 기여함과 아울러 본 연구팀의 학술연구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표 5-3> 국제학술지 게재 시 지원금액

등재지 구분	제1저자	
	상위 50%	하위 50%
SCIE	500,000	250,000
SSCI, A&HCI	1,000,000	
SCOPUS KCI 등재지(인문)	250,000	

- 대학원생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본교에서 지원하는 <논문작성법 하계 특강>을 최소 2회 필수 이수하도록 관리함

- 국제학술대회발표 준비 전략, 영어논문 작성 전략 등의 강연을 제공하였으며, SciVal을 활용한 해외 학술 연구 키워드 경향 분석 및 연구 전략 수립법, ProQuest Central을 활용한 전 주제분야 학술자료 조사 및 활용방법, PQDT Global을 활용한 해외 석박사 논문자료 조사 및 활용 방법 등을 통해 연구를 위한 학술 정보 탐색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



4) 2020 QS 세계대학평가 50위 성과 유지

- 2020년 QS 세계대학평가 고려대학교 '고고학' 분야 50위를 달성하였으며, 2021년에는 100위권 이내 및 아시아권 대학 4위를 달성함

- 2020년과 2021년 모두 QS 세계대학평가 "고고학" 분야에서 100위권에 진입한 국내 대학은 서울대학교와 본 대학원이 유일함. 이는 본 대학원이 지역 거점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유산 교육 및 연구의 국제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방증함

- 2020년 QS 세계대학평가 "고고학" 분야 상위 50위권 내 아시아 대학의 "Academic

Reputation” 수치를 비교했을 때, 본 대학원이 84.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함. 이는 본 대학원이 그동안 창출해온 연구 성과의 우수성을 한 눈에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향후 본 대학원이 고고학 연구의 주요 거점이자 국제 교류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Citations per Paper	Academic Reputation	Employer Reputation
17	Peking University Beijing,China (Mainland)	87.7	83.2	85.8
30	The University of Tokyo Tokyo,Japan	77.4	78.5	85.2
34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South Korea	68.1	80.9	76.9
50	Korea University Seoul,South Korea	44.5	84.6	72.1

<그림 5-1> 2021년 QS 세계대학평가 “고고학” 분야 상위 50위권 내 아시아 대학의 “Academic Reputation” 수치 비교

- 이와 같은 본 연구팀의 발전가능성을 토대로 향후에도 학생들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기적인 해외학자 초청강연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해외 고고학 및 미술사 연구의 동향 파악 및 연구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본 연구팀의 학문 분야(인문학)는 공학이나 과학 분야와 달리 국제 학술지 게재가 어렵고 게재 완료까지의 기간도 매우 긴 편이나, 현재 다양한 연구 교류를 통해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만큼 점차 국제적인 연구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2 차년도 목표 및 계획

- 해외 연구 교류 및 국제화 달성을 위해 해외 석학 초청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국내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해외 고고학 및 미술사 연구들을 소개하고자 하며, 특히 문화기술과 관련한 해외학자들을 초청하여 고고학 및 미술사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국제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학술대회가 단발적 행사가 아닌 국내외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함. 나아가 이러한 연구자들 간 교류가 단기 연수 및 인턴쉽, 교환학생 등의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Ⅵ

지역사회 기여 영역 목표 달성 실적

1 지역사회 기여 영역 목표 달성 실적

1.1 세부 목표 및 달성 정도

목표	달성 정도
학부-대학원 연계 “지역문제 해결 프로그램” 운영	60%
학부-대학원 연계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운영	60%
학부-대학원 연계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60%
연구기관-대학원 연계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50%

1) 학부-대학원 연계 “지역문제 해결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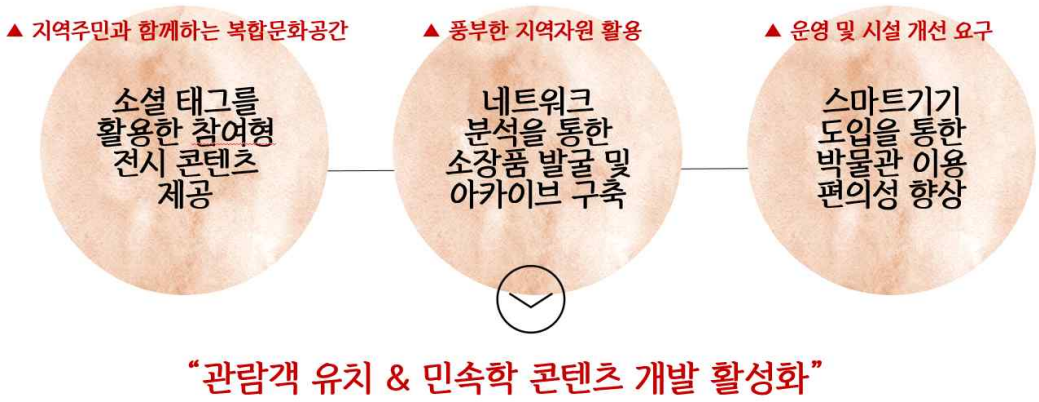
- 본교가 위치한 세종시는 계획신생도시로서 문화적 기반 열악, 구도심 지역의 문화적 소외감 심화 등의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음, 가령 2012년 개관한 세종시립민속박물관은 민속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연구·전시할 수 있는 문화체험 교육공간으로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관람객 수가 약 1만 3천 여명에 불과한 상황임

- 이에 세종시의회에서는 2020년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수립을 통해 세종시를 충청권 문화허브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다음 세 가지 방략을 제시함. ▲세종시 대표 문화공간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은 운영 및 시설 개선 요구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북부권 역사자원으로서 지속적인 보존 요구 ▲풍부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북부권 관광벨트 조성

- 이와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에 위치한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시 이전을 사실상 확정지은 상태이며, 현재 조성 중인 국립박물관단지와 향토유물박물관 또한 세종시의 문화인프라를 풍성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본 연구팀에서는 세종시립민속박물관과 세종지역 콘텐츠 개발 업체인 ㈜문화랑과 협업하여 <세종시립민속박물관 관람객 유치를 위한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 프로젝트 참여인력을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구성하여 학부와 대학원 연구의 긴밀한 연계를 도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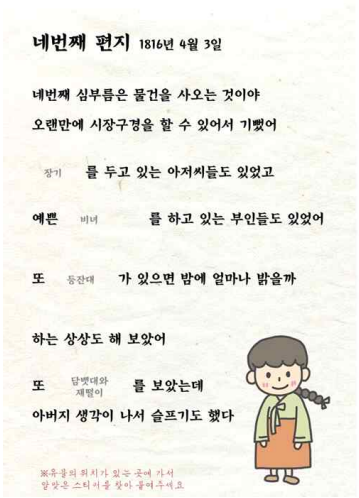
- 본 연구사업은 문화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조치원 읍·면의 청소년들에게도 문화체험의 확대 효과라는 상생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박물관과 연계하여 관람객 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실제로 개발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현장 체험 및 실제 박물관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성찰, 해석, 공유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대학원생 멘토와 학부생들의 실무 능력 배양 및 문제해결 관련 통찰력을 기를 수 있음



- 현재 1) 소셜 태그를 활용한 참여형 전시 콘텐츠 발굴, 2)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소장품 아카이브 구축, 3) 스마트 기기 도입을 통한 박물관 이용 편의성 개선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까지 세종시립민속박물관의 관람 경험을 최적화하기 위한 소장 유물 관련 교구(Handling Kits) 개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게임 App 개발, 초등학생 관람객을 위한 활동지 등을 개발할 예정임

<표 6-1> 학부-대학원생 연계 프로그램 <세종시립민속박물관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 진행 일정

	05	06	07	08	09	10	11	12
문제 탐색 및 정의 - 세종시립민속박물관 시설 및 주요 관람객 파악								
해결 방안 탐색 - 관람객의 니즈 발굴을 통한 필요 콘텐츠 분석								
콘텐츠 개발 - 교구, 워크북, 홍보영상, 가상현실 콘텐츠 기획 - 필요한 ICT 기술 탐색 및 적용 - 소장 유물 관련 프로토타입 제작								
현장 실행 및 효과 검증 - 교구, 워크북, 홍보 영상, AR 콘텐츠 제작 - 콘텐츠 최종 완성 및 현장 설치 및 실행								
최종 평가 및 성과 발표회								



2) 학부-대학원 연계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세종시에서는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문화취약계층 및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향유활동 지원사업을 진행해 옴.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은 여전히 교과과정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의 장르 또한 다양하지 않은 실정임

- 이에 본 연구팀은 세종시 소재 중학생을 위한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정규 교과목 외 다양한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개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문화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본 프로그램은 지역연계는 물론 가경고고학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청소년과 학부생, 대학원생 모두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청소년에게는 고고학 관련 직무와 사회적 역할 등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학부생과 대학원생에게는 문화유산 전문 지식과 소프트웨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즉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 '창의인재', '실무역량 강화'을 위한 소통의 장(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 6-2> 학부-대학원생 연계 프로그램 <문화유산 교육프로젝트> 세부 프로그램 구성표

시간	체험활동 세부내용	
1차시	진행자	지도교수 & 연구팀원
	시 간	시간 15분
	내 용	<문화유산 활용 체험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및 학부 소개 ㅇ 학부 소개, 프로그램 소개 ㅇ 보조진행자 소개 ㅇ 학부 전공 및 졸업 후 진로 유형 소개
2차시	진행자	지도교수 & 연구팀원
	시 간	시간 60분
	내 용	<문화유산 활용 체험 프로그램> 고고학 강의 ㅇ 백제와 삼국시대 강의 + 퀴즈 ㅇ 표제 '삼국시대 바로 알기: 슬기로운 백제생활'
3차시	진행자	지도교수 & 연구팀원
	시 간	시간 90분
	내 용	<문화유산 활용 체험 프로그램> 교구를 이용한 체험학습 ㅇ '우리 문화유산 반환' 강의 ㅇ 석기 만들기 체험 ㅇ 문화유산 보드게임 체험
4차시	진행자	지도교수 & 연구팀원
	시 간	시간 90분
	내 용	<문화유산 활용 체험 프로그램> ICT 장비 활용 체험학습 ㅇ 드론 조정, 사진 측량 체험

- 본 프로그램은 문화유산과 관련된 팀별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ICT 기술과 접목함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더불어 고고학 관련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주제 기반 학습'을 통해 단순 학습이 아닌 문제 발견과 같은 창조적 활동 및 새로운 산출물을 생산해내는 창의성을 강조할 계획임. 즉 본 연구팀이 제안할 프로그램은 학습 내용과 창의적인 사고력 개발을 통해 지금까지 한번도 부딪혀 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주도적·적극적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12월 3일 세종시 소재 연동중학교에서 1) "우리 주변 문화재를 찾아서"(충청남·북도 지역의 백제 문화재 답사 프로그램), 2) "나만의 문화유산 만들기"(체험 프로그램), 3) "나는 고대(古代)사람, 유산마블"(놀이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임

3) 학부-대학원 연계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 본 연구팀에서는 문화재 관련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2021 국제문화재산업전(Heritage Korea 2021>에 참여함

-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한 팀을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의 가치 창출"을 목표로 콘텐츠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진정한 보존이란 무엇인지', '어떤 점을 중심으로 보존 가치를 발굴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킴. 이 밖에도 문화유산의 가치를 단순히 '보존'이 아닌 '공유'와 '경험'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함

- <국제문화재산업전>은 매년 경주에서 열리는 산업전으로 문화유산 관련 콘텐츠의 국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임. 산업전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어떤 콘텐츠와 체험을 선호했는지 분석할 수 있으므로 문화유산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나 잠재적 니즈를 발굴할 수 있음

- 본 연구팀이 준비하고 있는 전시 주제는 <원래 내 모습은...?>으로, 손상 및 훼손된 유물이나 유적 모형을 전시한 후 관람객들이 훼손되기 전 원형을 상상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전시함

- 3D 프린팅, AR/VR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모형을 제공하며, QR 코드를 활용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유물 및 유적과 관련된 내용을 제공함. 유물의 실제 모습과 현재 소장된 공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가치 등을 설명하고, 보존 상황 또한 담았으며, 이를 통해 그저 바라보는 전시가 아닌 관람객의 다양한 활동을 유발하는 전시로 구성함

일시	진행내용
4월	● **전시 내용과 컨셉 결정 / 팀별 담당업무 및 인원 분배** - 배너: '관람자가 직접 경험하는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과 ICT의 만남'을 어떤 내용으로 담을지 의논하였고, 문화유산을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ICT의 필요성이 무엇일지 도출하여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와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홍보전시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 전시유물: 학과수업을 이용하여 3D 프린팅을 이용한 전시품과 AR을 결합한 콘텐츠를 준비하여 작년보다 풍성한 전시를 기획하였다.
5월	● **전시도면과 배너 내용 논의** - 도면: 부스 오른쪽 도면에서 입구와 동선이 잘 보이게끔 책상과 모니터를 재배치하였다. - 배너내용: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텍스트를 줄이고, 컨셉에 맞게 문화유산과 기술의 융합과 통일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학부수업에서 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및 관련된 기술을 배우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6월	● **배너 디자인 및 3D 프린팅할 유물목록과 인원 확정**

	- 배너: 배너 색을 변경하고, 외곽선을 정리하였다. 텍스트를 더 강조하고, '고려대학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학교 문양이나 사진을 추가하였다. 전공별 설명과 과목을 줄여 가독성을 높였다. 또한 학생들이 발굴과 VR&AR, 3D스캐닝/프린팅 수업 등에 참여한 사진을 추가하였다. 문화유산과 ICT의 만남으로 어떤 이점이 도출되었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제목으로 각 배너의 부제를 변경하였다. - 전시유물: 3D 프린팅할 유물로 여신상, 사자상, 미륵사지 등이 확정되었고 기존 프린팅된 유물을 활용하여 유물배치 도면을 수정하였다. 3D 프린팅 후처리를 위한 인원배정과 진행일시를 확정하였고, 전체적인 방향성에서 유물 전시와 배너의 내용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7월	**● 배너 디자인 및 내용 수정** - 디자인: 글자 크기 확대하고, 3D 프린팅하는 모습이 더 잘 보일 수 있는 사진으로 교체하였다. - 내용: 3번 배너에서 '문화유산과 ICT기술 융합의 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여 비슷한 학과들이나 이공계를 토대로 한 학과들과 다른 고려대학교 문화유산학부만의 차별점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문화유산을 직접적으로 관람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과도 연관짓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 텍스트의 길이를 줄였고, 학년별 교과목의 종류를 확정하였다.
8월	**● 1차 리허설 진행: 전체 배치, 배너내용 및 디자인, 3D 프린팅 유물, 영상검토.** - 배치: 동선을 더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책상을 뺐고, 설문조사와 포토카드 테이블을 합쳤다. AR 컨텐츠를 위한 태블릿 설치가 필요한지 확인하도록 하였고, 포토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부스 내 거리를 점검하였다. - 배너 내용 및 디자인: 텍스트를 간결하게 수정하고, 소제목을 강조할 수 있도록 디자인적 요소를 추가하였다. - 3D 프린팅 유물: 각 유물에 맞는 아크릴 지지대와 유물설명캡션을 점검하였다. 사각테이블을 활용하여 미륵사지 디오라마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 영상: 인트로의 속도를 줄이고, 드론과 터키 발굴현장 영상을 활용하여 생동감 있게 편집하도록 하였다.

4) 연구기관 연계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세종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국고고환경연구소와 연계하여 문화유산 교양강좌 개최
- 세종시 다정동 주민자치위원회에 MOU를 체결함으로써 대학-연구소-지역사회 간 지속적인 연계를 도모할 예정

회차	일자	시간	강사	강좌제목
1회차	09.04(토)	11:00~12:20	박상윤 (한국고고환경연구소 발굴실장,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 수료)	세종시의 발굴 이야기(가제)
2회차	09.25(토)	11:00~12:20	손준호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	세종시의 역사와 문화(가제)
3회차	10.16(토)	11:00~12:20	진영민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 수료)	세종시와 중국 고대 도시 이야기(가제)
4회차	10.30(토)	11:00~12:20	안세진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 과정)	조선시대 세종시와 충청도 지역의 분청사기(가제)
5회차	11.13(토)	11:00~12:20	송지호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 과정)	일제강점기 충청도 일대 가마터조사 이야기(가제)

1.2 차년도 목표 및 계획

- 1~2차년도에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외부 활동이 불가하였고, 대학원생들이 정규 교과목과 연구에 매진해야하는 시간이 길어 지역사회나 산업체와의 협업을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차년도부터는 본 연구팀이 위치한 세종시와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박물관, 학교, 주민센터에 본 연구팀이 개발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보급하고, 학생들이 직접 기획, 진행, 평가의 전 단계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연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도록 지원하고자 함